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31호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LONG & FOSTER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NIH 보조금 예산 대폭 감축

MD 지역경제 영향 클 듯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베데스다에 위치한 연방보건연구원(NIH) 서쪽 입구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일(월) 연방보건연구원(NIH)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감축을 시사하면서 과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NIH 본부에는 모두 2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NIH는 본부 외에도 모두 27개 연구센터와 3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1887년 창설된 NIH는 연간 450억달러의 직접 예산과 560억달러의 간접 예산을 집행하며 미국 과학기술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왔다.

NIH 예산의 80% 이상은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과학계에서는 NIH 보조금 감축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간 간접 예산 40억달러를 전격 축소함과 동시에 이전 회계연도 집행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 중 90억 달러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태다. 각급 연구기관들은 간접 예산을 축소할 경우 사실상 연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버드와 예일,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자금의 60-70%가 간접비다.

하지만 NIH는 간접예산 비율을 전체 연구예산의 15%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연방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수백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대학들이 연구비의 60%를 '간접비'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라면서 "이들 대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왜 500억달러 기부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대학에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면서 "명문대학들은 심지어 기부 기금을 학생 장학금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옥채 기자

»2면 'NIH 보조금'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경제 견고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1일(수) 오전 연방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 경제가 대체로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현재 통화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덜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이같은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1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당시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파월 의장은 "지나치게 빠르게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인플레이션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긴축정책이 느리거나 강도가 적을 경우 고용 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2년간 상당히 완화됐으나 연준의 기존 2%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현재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 높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최근 3개월 연속 2.8%를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긴 하지만, 연준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물가상승률 목표치 2%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기간 현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미국장로교(PCA) 1위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가 재정과 교인 숫자 면에서 미국 장로교회 1위를 차지했다.

미국장로교총회(PCA) 집행위원회가 산하 1934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버지니아 센터빌에 위치한 와싱톤중앙장로교회가 매주 출석 교인 5116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는 지난 2010년 버지니아 비엔나에서 센터빌로 이전한 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13년 류응렬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더욱 크게 부흥했다. 류 목사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요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면서 "진정 큰 교회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비례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이기에, 성숙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긴다"며 겸양의 메시지를 전했다.

PCA 교단 대형교회 2위는 페리미터 교회(GA 존스 크릭) 5034명, 3위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CA 애너하임) 4303명, 4위는 바라이어우드 장로교회(AL 버밍햄) 3701명, 5위는 파크 시티스 장로교회(TX 달라스) 3542명 등이었다.

테네시주 교회가 8개, 플로리다가 7개였다. 상위 50개 교회 중 한인 교회는 1위와 3위를 포함해 모두 네 곳이었다.

PCA 교단 소속 총신자는 39만3528명으로, 상위 50개 교회의 매주 출석 교인은 7만6420명이었다.

PCA 교단 소속 교회의 평균 신자는 158명이었다.

교단 측은 매주 출석 교인 2천명 이상인 교회를 메가처치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종교씽크탱크 하포드 연구소도 출석 교인 2천명 이상 교회를 메가처치로 정의한다.

메가처치의 70% 이상은 선벨트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에 위치해 있다.

미국은 1970년대 메가처치가 50개에 정도였지만 현재는 14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윤미 기자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담임목사가 본당에서 설교하고 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북버지니아 연방 소유 매물 쏟아진다

워싱턴DC 뿐만 아니라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수도권 지역의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 매물로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데이빗 타르터 조지메이슨 대학 부동산기업센터 소장은 "연방정부 축소 정책으로 인해 북버지니아 지역 시장이 받은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면서 "곧 시장에 매물이 넘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버지니아부동산중개인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북버지니아 지역의 2024년 4분기 사무실 공실률은 17.8%에 이른다.

대체로 북버지니아 지역의 위험 공실률은 10% 안팎인데, 이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건물 리스팅이 쏟아진다면 이 공실률이 19% 안팎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조달청(GSA)의 마이클 피터스 건물서비스국장은 "연방정부 소유 건물의 50%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비율이 북버지니아 지역에 적용된다면 현재 스퀘피트당 렌트비 34.35달러가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피터스 국장을 임명하며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스 국장은 공공건물개혁위원회 모임을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우리는 빠른 일처리를 통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자진사퇴 프로그램으로 최대 10%의 공무원이 사퇴하고 유휴건물을 정리하면 50%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GSA는 워싱턴DC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유휴건물을 즉각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지역의 부동산 분석기관 메르시 오웬사 테스트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타격을 예상했다.

GSA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연방정부 소유 및 렌트 면적은 4400만 스퀘어피트에 달한다.

이중 버지니아에는 185개 기관이 1600만 스퀘어피트를 점유하고 있다.

북버지니아 지역은 특히 알링턴 카운티의 펜타곤을 중심으로 국방관련 부서의 점유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스티븐 테이텔바움 아메리칸 대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관련 시설도 예외없이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북버지니아도 안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라이언 토우힐 알링턴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대표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축소를 거듭해 나간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면……

VA 페어팩스 카운티 재조사 시스템 가동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중부대서양지역 무죄 프로젝트(MAIP)와 협력해 기소 검증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데스카노(민주) 검사장은 "검찰의 잘못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이라면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MAIP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신청인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버지니아의회는 지난 2020년에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랄프 노덤 주지사가 서명해 확정됐다.

이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버지니아동부연방지방검찰청이 알링턴 카운티와 폴스 처치 시티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2021년 마크 헤링 당시 검찰총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유죄평결 사건을 대상으로 재조사 부서를 창설했으나 2022년 취임한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이 부서를 해체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 검찰청 중 최초로 MAIP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MAIP는 버지니아 노폭,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00년에 설립된 MAIP는 워싱턴 지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0명의 재심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들의 총 복역 형량은 889년에 이른다.

김윤미 기자

»1면 'NIH 보조금'에서 이어집니다

앤드류 닉슨 연방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리 행정부는 과학기술 보조금이 인건비 등 간접비로 지출되지 않고 과학 연구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식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 딴지를 걸려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과학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도 연방정부가 미국의 과학기술이야말로 개척자 정신의 상징이라며 NIH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NIH 외에도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연방식품의약품국(FDA) 또한 구조조정 회오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메릴랜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천여명의 NIH, CDC, FDA 소속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류 프리드슨 카운티 의회 의원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본부를 둔 이들 세 기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일을 하는 곳인데, 구조조정 대상에 거론되는 현실은 매우 불행하다"고 밝혔다.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 검찰총장은 22개주와 연합해 연방법원에 보조금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트럼프, 워싱턴DC 범죄-홈리스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각종 강력범죄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더러운 낙서를 지우고 폭력범죄를 잠재우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불법 홈리스 캠프 또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워싱턴DC를 불결하고 범죄가 들끓는 곳으로 폄훼해 왔다.

연방의회가 공화당 주도로 워싱턴DC 자치권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조만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워싱턴DC 정부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작년 살인사건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주 강의한 교사 체포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쉐리프국이 학교 일과시간에 술에 취해 있었던 교사를 체포했다.

용의자 트레비스 존스는 지난 7일(금) 오전 11시55분 자신이 근무하는 파크 뷰 고교에서 술에 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학교경찰(SRO)은 용의자를 학교 복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쉐리프국은 용의자가 2024년 12월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용의자는 특수학급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다.

불체 주일학교 교사 아동성범죄 유죄 인정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6-13세 여자어린이 네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인정했다.

용의자 어빈 알파로-로페즈(34세)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된 전력이있으며 현재도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용의자는 8월 선고공판을 통해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 당국은 용의자가 형기를 마치면 연방당국에 인계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MD 검찰총장 트럼프에 맞선다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 검찰총장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부당한 조치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검찰청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 변호사 5-6명을 전담 배치하고 예산 12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출생 시민권 폐지, DEI 폐지, 성소수자 탄압 정책 등이 모두 그러하다"고 밝혔다.

박동우 기자

워싱턴 날씨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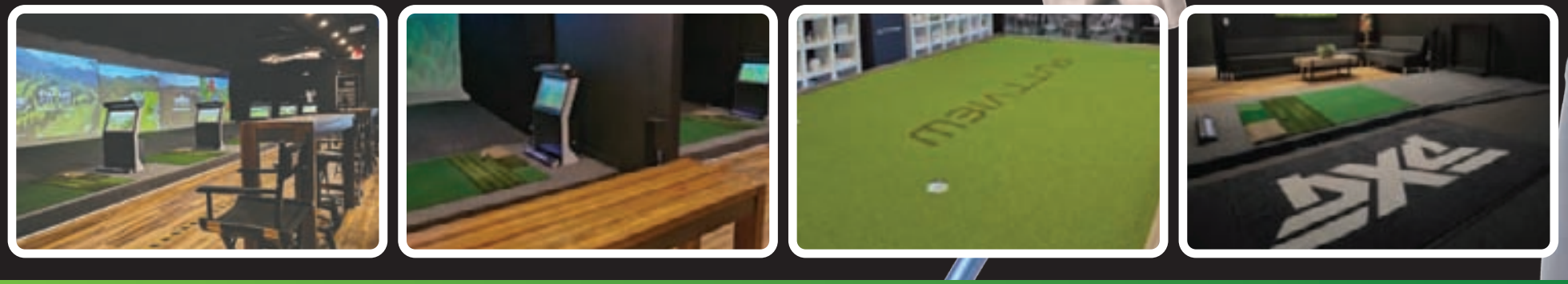
2월 12일(수) 36~33

13일(목)	48~27	16일(일)	51~23
14일(금)	40~27	17일(월)	35~22
15일(토)	39~36	18일(화)	38~24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GTR GOLF TRAINING REVOLUTION
챈틀리 GTR
• 인도어 골프 • 실내 연습장 • 스크린 골프 •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GTR GOLF TRAINING REVOLUTION
703-817-2130
OPEN HOURS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챈틀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무역전쟁에 농업 타격 커

관세 부과-불체자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정책과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농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상당수의 미국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농업 등 축산업 분야에서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목장 운영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목장주들은 불체자 추방이 이어지면 우유를 짜고 계란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농장주 상당수는 농수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H-2A 임시 고용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남미 국가의 싼 인력을 고용해 왔으나 비자 쿼터 등의 제한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목장은 아예 이 비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고용이 필수적이라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다니엘 오르테가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미국 농장 근로자 242만 명 가운데 약 40%가 불법 체류자"라면서 "농장의 불법 체류자를 모두 추방하면 심각함을 넘어 미국 농업의 붕괴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아사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서부지역 대규모 목장주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나 이같은 현실을 목도하면서 반드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타일러 웬질라프 위스콘신농장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은 "우리 농장주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지만, 이미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선량한 불법체류 근로자를 모두 추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철폐 정책으로 인해 연방 농무부(USDA)의 각종 기후위기 대응 보조금, 소수계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고 중국 등의 미국 농산물 관세 보복 조치로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농장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의회는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로 인한 중국의 대미국 보복관세가 발효돼 지역농업이 불확실성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조엘 헌팅턴 버지니아농장주연합회 대표는 "농업보조금이 축소 혹은 폐지되고 수출농산품에 고율 관세 보복 조치를 당하게 되면 농장주들은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의 추가 보편관세를 발효하자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에 15%, 농기구와 트럭에 10% 보복 관세를 매겼다.

최근 8년새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산 농산품의 중국 내 관세율은 15%-47%에 이른다.

오르테가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농업 분야 손실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면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14명 2주 코스 마무리
서울교대 학생 페어팩스 교사 연수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학생들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교생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교대의 동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연수단 14명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콜린 파월, 프린트 힐, 마샬 로드, 비엔나, 울프 트랩 초등학교 한국어 이머전 프로그램 학급에 교사로 참여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이머전 프로그램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머전 프로그램은 수학과 과학 등은 한국어로, 영어와 사회 등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이중언어 구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교대 학생들은 이머전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미국 학생들의 피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설날 행사에 참여해 인기 한류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공기돌 놀이 등을 가르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연수를 마친 학생들에게 연수수료증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랩탑 컴퓨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랩탑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또한 테크놀로지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서울교대 학생들이 이머전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

트랜스젠더 고교 여자부 출전 금지

버지니아 고교 리그(VHSL), 대통령 행정명령 준수

버지니아고교 스포츠 리그(VHSL)이 여자 운동부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출전을 금지시켰다.

VHS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VHSL은 버지니아의 300여개 고교 엘리트 스포츠 경기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2014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참여를 허용한 이후 극심한 반발에 시달려 왔다.

VHSL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즉각 발효되며,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면 여자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VHSL의 이전 정책지침서에 따르면, 출생증명서나 학교 등록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다른 팀에서 뛰고 싶어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 등을 포함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VHSL은 여러 단계의 검토를 통해 출전여부를 결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연방교육법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전미대학스포츠연맹(NCAA)도 대통령 행정명령 다음날 곧바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생물학적 성을 구분할 목적으로 출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 행정명령 이전에도 VHSL이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해왔었다.

영킨 주지사는 "VSHL이 기존 정책을 고수했더라면 수백만달러의 연방보조금을 잃을 뻔 했다"면서 "결국 우리는 상식의 승리를 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맥클린 한국학교 봄학기 개강

맥클린 한국학교 (교장 이은애)가 지난 8일 개강식을 갖고 봄학기 수업에 들어 갔다.

이은애 교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뿌리를 이해하고 언어와 문화를 잘 배워 미국 사회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봄학기는 5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나이와 한국어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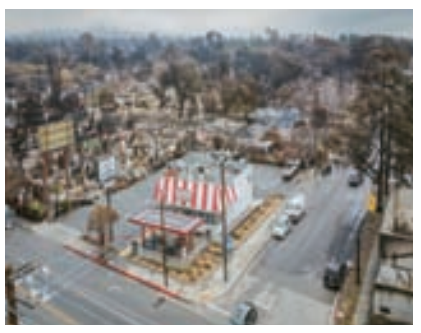
김윤미 기자

잿더미에서도 희망을 본다

LA 산불 대재앙 한 달, 그 후
재기의 몸부림

38년 운영 한인 햄버거 업소
주민들 위한 '지원 행사' 열어
500여명 참석해 공동체 확인

페어옥스 버거'가 개최한 알타데나 지원 행사에서 식당 주인인 이기선·유정자(맨 왼쪽)씨 부부가 직접 만든 치킨 타코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이튼산불에도피해를입지않은 '페어옥스버거' 건물.

역설적이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인데, 다들 미소를 짓고 있다.

"마미! 파피!"

곳곳에서 이기선(81), 유정자(75)씨 부부를 부르는 소리다. 이씨 부부는 엄마, 아빠 대하듯 자신들을 부르는 이들을 친근하게 꼭 안아줬다.

6일 오후 1시, 알타데나 '페어옥스 버거(Fair Oaks Burger)' 주차장이 500여 명의 주민들로 북적였다. 38년 간 햄버거 가게를 운영해온 이씨 부부는 이날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알타데나 지원 행사(Altadena Wellness Event)'를 개최했다. 커뮤니티 활동가로 일하는 수잔 박씨가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통해 행사를 도왔다. 이씨 부부는 이날 집에서 만든 치킨 타코 1000인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주변이 다 잿더미가 된 가운데 페어옥스 버거만 화마를 피해갔지만 수도 등을 제대로 용할 수 없어 식당 영업은 중단한 상태다. 식당 주방 대신 집에서 타코를 준비해 온 이유다.

아내 유씨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알타데나 주민들은 우리를 오랜 시간 찾아준 고객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길 건너편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산불로 인해 가게가 전소된 한 백인 할머니는 이날 이씨 부부에게 "너희 부부를 다시 보게 돼 너무 기쁘고 꼭 다시 영업을 재개하길 바란다"며 "당신들이 만드는 햄버거를 꼭 다시 먹어보고 싶다"고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알타데나 지역 사회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피해 이후 이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열린 첫 구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현장에는 이씨 부부가 지원 행사를 연다는 소식에 월드푸드뱅크, 알타데나2030, 피드더칠드런, 월드클래스 키친 등 7개의 비영리 단체가 동참해 통조림 식품, 물, 간식, 옷, 손 세정제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재난관리청(FEMA)과 중소기업청(SBA) 관계자들도 참여해 피해 보상과 일자리 상담 등을 진행하며 도움을 제공했다.

남편 이씨는 "다시 문을 열고 싶지만 오랜 단골들의 집이 모두 타버려서 영업을 재개한다 해도 그들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암울한 상황인데도 동네 주민들이 우리 가게 건물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을 보고 나보다 더 기뻐해주더라"고 말했다. 이는 이씨 부부가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가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 원동력이다.

행사를 기획한 수잔 박씨는 "알타데나는 자체 행정기관이 없어 피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관할인 LA카운티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은 데다 인근 지역인 패서디나시의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부부도 영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영업은 중단했지만 정직원 5명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한다. 이씨는 "직원이기 전에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다들 가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만 계속 봉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들 수십 년 간 이 가게에서 함께 일하면서 같이 삶을 살아온 직원들이라서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나와 타코를 나눠주는 봉사자들도 이씨 부부의 두 딸과, 페어옥스 버거의 직원들이었다.

이씨는 "여기에 줄을 서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우리 식당의 오랜 단골들"이라며 "우리를 가족처럼 여겨줘서 우리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끈끈한 유대감은 잿더미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든다. 화마도 공동체 의식은 꺾지 못했다. 알타데나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알타데나=김경준·강한길 기자

'식당에 계란 도둑 등장'… 계란 부족 백태

시애틀 한인 식당, 540개 도난당해
트레이더조, 1인 12개입 1판 제한
달걀 요리엔 1개당 50센트 더 받아

지난 8일 오전 8시 손님들이 라브레아 애비뉴와 3가 코너의 트레이더조 매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손님들이 계란을 사기 위해 매장 내에서도 길게 줄을 섰다. 김상진 기자

국내 계란 부족이 악화하면서 이제는 계란 도둑까지 등장했다.

동부의 일부 식당은 계란이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면 추가 요금을 받고 텍사스에서는 암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계란 부족 사태는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22년 이후 1억50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이에 따라 계란 공급이 급감했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해야 하며,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류독감이 최근 들어서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계란 공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계란 파동으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백태를 들여다 봤다.

▶금란되니 도둑도

시애틀 한인 운영 식당에 도둑이 들어 540개의 계란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애틀 지역 방송국 KING5에 따르면 7일 오전, 시애틀의 루나 파크 카페에서 계란 540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 주인 박형 씨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범인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CCTV 영상에는 흰색 밴을 타고 온 남성 두 명이 냉장고를 부수고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씨는 "18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계란 가격이 너무 올라 힘든 데다 이제는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한탄했다. 최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배달 트레일러에 실린 10만 개의 계란(약 4만 달러 상당) 도난 사건도 벌어졌다.

▶구매 제한

토요일 아침마다 문 열기 전의 트레이더조 앞에는 계란을 사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생기고 있다. 트레이더조를 방문한 한 고객은 "조금 늦으면 계란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트레이더조는 지난 6일부터 전국 모든 매장에서 고객 1인당 하루 한 판(1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요금 부과

일부 레스토랑은 계란이 들어간 음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와플하우스'는 지난 3일부터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란 품귀를 이유로 들어 계란이 들어간 메뉴에 50센트를 더 받고 있다.

▶암탉 대여 서비스

텍사스에서는 암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렌트 더 치킨'은 암탉 2~4마리가 있는 소형 닭장을 배달해 준다. 지역에 따라 695달러부터 시작한다.

정윤재 기자

한인사회 먹칠한 악덕 한인 세입자

시애틀 지역 거주 부부
집주인 소송에 겨우 퇴거

한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여 만에 이사갔다.

9일 시애틀에서 1인 독립미디어로 활동하는 조나단 최씨는 소셜미디어 X에 '속보: 악덕 세입자 김씨 부부가 마침내 임대주택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X에 "김씨 부부가 수많은 법적 소송을 당한 끝에 지난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기한을 넘긴 채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 가족의 임대주택 불법점거 행태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규탄시위와 소셜미디어 제보로 알려졌다. 시애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벨뷰 지역에 사는 김씨 부부는 지난 2022년 7월 집주인 자스카란 싱에게 9개월 단독주택 렌트를 조건으로 월 4400달러씩 내기로 했다. 이후 김씨 부부는 이사 후 3개월 동안만 렌트비를 낸 뒤 불법점거를 시작했고, 집주인 싱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 부부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불법점거를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최씨와 코리 한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 등 3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김씨 부부가 불법검거한 주택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한 집 앞에 모여 상습적인 불법점거를 멈추라(Stop Squatter)고 촉구했다. 한인들은 "김씨는 사기꾼"이라며 지역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 싱이 밀린 렌트비가 8만 달러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씨 부부는 비영리단체 세입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해 '실직'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에 맞섰다고 한다.

김씨 부부의 불법점거는 지역사회 규탄과 소송전으로 2년여 만에 끝이 났다. 최씨는 지난 9일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했던 단독주택을 찾아가 이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X에 올렸다. 김씨 부부는 이삿짐 트럭을 준비한 뒤 자녀들과 차를 타고 집을 나왔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26만을 기록했다. **김형재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짜 기독교인" vs "민 의원 한심"

보조금 동결 지침 놓고
백악관 대변인과 설전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연방 의원으로서 참으로 한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설전의 발단은 연방 보조금 동결 논란으로 시작됐다.

민 의원은 백악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충돌하는 연방 보조금과 대출 지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지침을 철회한 것을 놓고 맹비난한 바 있다.

연방 판사가 지난달 28일 해당 지침 시행을 차단했지만, 레빗은 연방 지원금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및 기타 진보적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데이브 민

캐롤라인 레빗

레빗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철회는 연방 보조금 동결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OMB 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며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레빗이 정책을 설명하면서 종교적 상징을 이용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조롱했다.

민 의원은 "그녀는 거대한 십자가를 걸고 나타나 마치 자신이 독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 하면서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X에 글을 올렸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던 레빗은 이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신앙, 결혼, 가족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반박했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레빗은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 위치한 센트럴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보수적 가치관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념이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27세인 레빗은 6개월 된 아들 니콜라스 로버트의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하다. 둘의 설전이 불거지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 X 이용자는 "백악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이 첫 브리핑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착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X 이용자는 "이런 가짜 기독교인들이 제일 짜증 난다"며 "십자가를 착용하면서 선함과 친절을 강조하지만, 트럼프 지지 기독교인들은 증오만 퍼뜨린다"고 비난했다.

최인성 기자

재외동포 위한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인터넷은행인 포도뱅크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도뱅크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의 주관으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재외동포 단체장과 기업인 등이 뜻을 모아 해외동포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와 '한상펀드' 조성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약 3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600억 원은 한상펀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이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포함해 300억 원 이상의 투자 의향이 확정됐다.

나머지 2400억 원은 한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ICT 관련 기업들의 출자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유망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이며, 소기업협회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김병기 추진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면,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한상 기업들 또한 보다 원활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로톡스' 가 는다

'보톡스 맞는 남성' 신조어
피부미용 관심 증가 반영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 '브로톡스(Brotox)'란 용어가 화제다.

CBS뉴스는 보톡스를 비롯한 필러, 레이저, 마이크로니들링 등 다양한 미용 시술을 받는 남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로톡스는 '남성(Bro)'과 '보톡스(Botox)'의 합성어로, 주름 개선과 동안 효과를 위해 보톡스를 맞는 남성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 매체는 '브로톡스'를 소개하면서 남성들 사이에서 보톡스 시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션 맥널리 박사는 "기존 보톡스 이용자는 35~55세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더 젊은 층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맥널리 박사는 남성과 여성의 보톡스 시술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남성은 근육량이 많아 주입량이 더 많다"며 "자연스럽고 남성적인 인상을 유지하려면 주사 위치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성들의 미용 시술 관심은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개선 레이저, 피부 톤 정리 마이크로니들링, 여드름 흉터 및 홍조 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애스미 베리 박사는 "남성들이 피부 건강과 피부암 예방에 대해 배우면서 전반적인 관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화상 회의가 증가했고, 화면 등을 통해 보이는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진 것이 확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브로톡스'가 남성들의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베리 박사는 "40대 이혼 남성이 외모를 가꾸며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60대 직장인은 노화로 인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모든 주름을 없애기보다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베리 박사는 "눈가에 소량만 맞아도 생기가 있어 보인다"며 "처음부터 모든 주름을 없애지 말고 부담 없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대한항공, 40여년 만에 CI 바꾼다

'하늘색 바탕에 태극 마크를 새긴 KOREAN AIR'.

대한항공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 로고가 40여년 만에 교체를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1984년부터 사용해온 로고를 올 상반기 중 바꿀 계획이다.

자회사 아시아나항공과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다. 승무원 유니폼 교체는 물론 항공기 도색에만 수년이 걸리는 '대공사'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기업 정체성)가 아시아나와 융합의 구심점이자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I는 '기업의 얼굴'로 불린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CI 교체(신설) 바람이 분다. HD현대(2022년)와 HS효성(2024년)이 대표적이다.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롯데·DB(2017년), 기아(이하 2021년), DL(옛 대림), LX(LG에서 분리)로 늘어난다. 삼성(2015년)·SK(2005년)·현대차(2011년)·LG(1995년) 등 재계 선두 기업에 이어 새 기류다.

대한항공과 HD현대의 경우 각각 분위기 쇄신 측면이 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명예회장이 2019년 별세한 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CI 교체를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창사 후 최대 위기로 꼽힌 코로나19가 닥친 데다, 인수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보류됐다. HD현대의 CI 교체는 3세 경영자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경영 드라이브와 관련 있다. 지난 2022년 현대중공업지주에서 사명을 HD현대로 바꾸고, 잇달아 CI도 교체했다.

CI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작업을 맡기는 편인데, 건당 69만~138만 달러가 든다.

CI 교체 이후 매장·제품 등에 대대적으로 새 CI를 적용해야 한다. 2005년 CI를 바꾼 SK가 SK텔레콤·SK주유소 간판 교체에 들인 비용만 약 7700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동균 교수는 "CI가 오래됐거나, 총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교체하기보다 (교체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이 얼마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트럼프 "취임 후 시진핑과 통화"…中, '취임 전 통화' 재확인

"중·러 강해져 국방비 늘릴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1월 20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는 해당 시기에 두 정상 사이에 통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시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통화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시 주석과 통화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어 "취임 이후인가"라고 물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와 통화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17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지난달 23일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밝힌 바 있으나, 취임 이후에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추가 10% 관세 발효 전날인 지난 3일 "24시간 이내에 시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튿날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을 수정한 바 있다.

시 주석과의 통화 언급은 진행자가 중국과 협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력이 강하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이 막 나가도록 내버려 뒀고, 우리는 중국에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빼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빼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차이를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시 주석과 대화했다고 했는데, 두 정상이 대화한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월 17일 시 주석은 약속에 응해(應約·상대국의 요청에 응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중국은 관련 보도자료를 이미 발표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인 지난달 17일 통화했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 전 세계의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알 것"이라며 친분을 거듭 과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이란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방어체계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란은 협상하고 싶어 할 것이고, 나는 폭격 없이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싶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며 "한가지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중국, 러시아)의 군사력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시 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일 중 하나는 이런 모든 것, 폭탄을 만드는 일을 좀 줄이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군축 협상에 임할 수도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다 한 달간 유예하고 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를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 이들 국가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와 2천억 달러, 멕시코와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본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 우리는 그 자동차에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으며, "캐나다는 우리에게서 자동차 산업을 훔쳤다. 그래서 캐나다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차 산업을 빼앗길 것이다.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관세율이 50%, 100%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배경으로 안보 문제를 들기도 했다.

"부모의 통제와 자녀 경험 사이 SNS는 균형 중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 11일 한국 기자단을 상대로 청소년 계정 취지를 브리핑했다. [사진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부모가 시간제어·친구파악 가능 메시지 내용 못봐 애들도 보호"

책이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되지 않는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이 꺼지는 등 수면 모드도 적용된다.

보호자는 청소년의 앱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계정, 메시지를 주고받는 계정을 볼 수 있다.

이에 모세리는 "거짓말을 막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다"며 "규제에 따라 다르지만,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없다. 처음부터 나이를 가짜로 입력할 경우 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신분증을 업로드하도록 요청하거나 얼굴을 인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세리는 개별 앱뿐만 아니라 운영체제(OS)나 디바이스 운영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세리는 "인스타그램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앱 차원에서 나이를 인증하는 건 어렵다.

애플이나 구글 등 OS나 디바이스 단계에서 나이를 인증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세리는 또 "부모의 경험도 고려해야 하지만 청소년의 경험도 고려해야 한다.

제한이 너무 많으면 10대들이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부모에게 권한을 주는 것과 청소년들이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983년 생인 모세리는 뉴욕대(NYU) 재학 중이던 2003년 디자인 전문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2008년 페이스북에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입사 이듬해 바로 매니저, 즉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뒤 2012년엔 페이스북 디자인 총괄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가짜뉴스 퇴출 등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 보호 등 정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맥락으로 읽힌다.

2018년엔 인스타그램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곧 대표로 임명됐다. 모기업 메타(META)의 마크 저커버그 CEO의 신임이 두텁다는 의미다.

김민정 기자

밴스·머스크 이어 트럼프 '정책제동' 법원 공격…"정치판사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대규모 반(半)강제 퇴직 프로그램 시행, 보조금 지급동결 등 자신의 정책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 공격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능하게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사기, 낭비, 남용이 발견됐다"라면서 "이제 일부 활동가들과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 이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멘텀(동력)을 잃는 것은 진실을 찾는 데 매우 해가 될 것"이라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 변경할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내 여러 법원은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켰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월급을 더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될 수 있다고 압박한 퇴직 프로그램도 연방 법원에 의해 시행이 일단 보류된 상태다. 법원의 잇단 제동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더 나아가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탄핵당해야 한다"면서 연방 판사 탄핵을 주장했다.

연방 판사 탄핵은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단순 과반 찬성)와 상원에서의 최종 판단 단계인 탄핵심판(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된다.

미국 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연방 판사가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으며 이 가운데 8명만 실제로 상원에서 탄핵당했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백성호 CPA, MBA
백성호 공인회계사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죠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부고

국가원로회의 미동부지역 상임위원장이시고
한미장학재단 미동부지역 회장을 역임하신
워싱톤 큰 어른 **정규섭** 장로님께서
지난 2025년 1월 26일 오전 2시 30분경에
100세(한국나이)의 나이로 소천 하셨습니다.

고(故) **정규섭** 장로

- 1925년 10월 15일생
- 1947년 해군사관학교 졸
- 1955년 주미대사관 해군 무관
- 1956년 최인숙 권사와 결혼
  슬하에 3남 1녀
- 1960년 해군본부 해군 준장
- 1964년 주 케냐 대사대리
- 1967년 주미 대사관 공사
- 1968년 뉴욕 총영사
- 1970년 외무부 차관보

-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원로장로**
- **한미장학재단 미동부 회장 역임**
- **국가원로자문회의 워싱톤지부 상임위원장 역임**

천국환송예배

▶일시 : 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맥클린한인장로교회당
7144 Old Dominion Dr.
McLean, VA 22101
▶집례 : 고현권 목사

하관예배

▶일시 : 2월 14일(금) 오후 12시 30분
▶장소 : National Memorial Park
7482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국가원로회의 미 동부지역

상임위원장 홍희경
공동의장 이은애, 송재성
사무총장 김광근

트럼프 '한국 투톱' 자동차·반도체도 때린다

〈대미수출액 1·2위 품목〉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예고
"한국 등 예외 없이 25% 철강 관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의 35.4%(453억 달러)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1, 2위 품목이다.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그간 관세 면제를 받아 온 주요 철강 수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4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의 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쟁이 본격화·다면화하는 양상이다. 그는 이번 관세를 두고 "많은 관세 중 첫 번째"라며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t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조건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날 공개한 포고문에서 한국·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일본·영국 등 그동안 철강 관세 예외를 적용받았던 국가들을 열거하며 이들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2022~2024년 미국의 (철강) 수요는 610만t 감소했지만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쿼터제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양은 약 150만t 증가했다"며 기존 합의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가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백악관은 중국의 철강 덤핑 공세에 대응해 미국 철강 산업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을 막겠다는 의지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반응이다. 별도 협상 등을 통한 상황 변경이 없는 한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 수출용 철강은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이럴 경우 수출할수록 손해라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힌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출 물량을 유럽이나 남미 등으로 분산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미국에 생산기지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현지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철강을 납품받아 현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세가 붙으면 제조원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1대 생산에는 철강 1t, 알루미늄 250kg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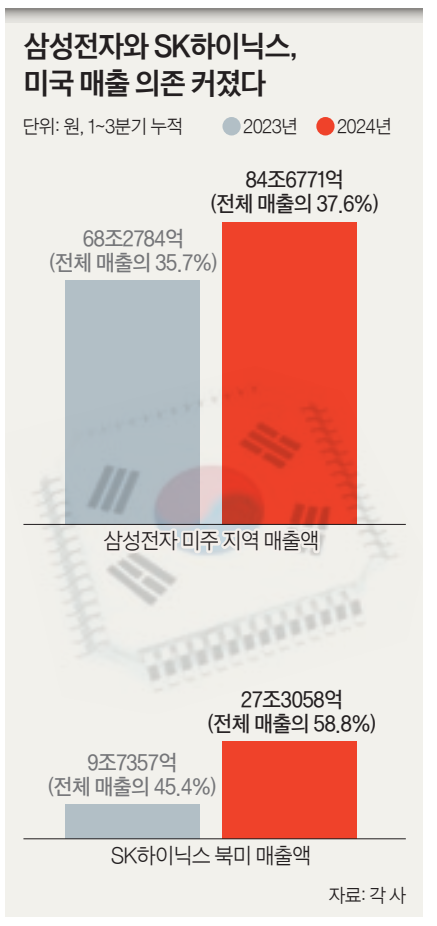
포스코·현대제철은 미국 앨라배마·조지아주에 위치한 현지 공장에서 한국산 차량용 강판 소재를 재가공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공장에 납품해 왔다. 이 규모만 연간 약 60만 대 분이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에 가전공장을 확대했던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들은 미국 현지 철강 업체의 강판을 구매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참가해 봤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는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관세에 예외는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예외 약속를 받아냈다.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이익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고려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는 우리가 몇 안 되는 무역흑자를 내는 곳이다. 그들이 비행기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 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호주로부터 179억 달러(약 26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철강 무관세 쿼터를 얻어낸 것처럼 미국과 서둘러 양자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관세 실제 부과 시점을 다음 달로 잡은 것은 양자협상의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영우·김원 기자, 워싱턴=김형구 기자

중국 대신 미국 매출 키운 한국 반도체, 관세 인상땐 직격탄

미·중 반도체 전쟁 이후 미국 의존
미주 매출 비중, SK 59% 삼성 38%
관세인상 땐 미 기업도 수익성 하락
"미 빅테크 기업과 함께 전략 세워야"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이후, 중국보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커진 터라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추이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북미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3분기 북미 매출액이 27조3058억원으로 1년 전(9조7357억원)의 약 3배다. 전체 매출 중 북미 비중도 1년 전 같은 기간(45.4%)보다 13.4%포인트 상승한 58.8%에 이른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미주 매출(가전·반도체 포함)도 84조6771억원으로, 전년 동기(68조2784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미주 비중은 37.6%로 1.9포인트 늘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16.8%), 유럽(16.6%), 중국(15.4%) 비중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4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제조하는데, 이는 현재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2017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은 반도체에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반도체 칩을 한국으로 들여와 재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해 왔다.

WTO 무역협정을 무력화한 트럼프의 관세 카드에 대만 TSMC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미국 내 생산 용량을 늘리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분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TSMC는 매출의 70%를 미국에서 올린다.

한 가지 기대해볼 만한 건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빅테크들이 불만을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관세 인상 부담을 주요 고객사에 전가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만 외신에 따르면 TSMC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첨단 공정 제조 가격을 최소 15%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용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내야 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범용 메모리의 한국산 비중이 크고, 특히 HBM은 한국 기업의 생산량이 압도적인데 관세를 매기면 미국에도 실익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반도체에도 들이대는 배경엔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에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짓도록 유도하면 투자 유치 효과가 있고, 첨단 칩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 정부의 투자 요구를 마냥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사업성을 높일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척추 디스크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자동차 수출 절반이 미국…"관세 20%땐 영업익 19% 감소"

〈현대차·기아〉

트럼프 "일부국가, 미국 차 못팔게해"
관세로 무역 불균형 깨겠다는 의지
"한국, 쿼터제로 무관세 적용받거나
차종별 관세 차등화로 피해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관세'도 임박한 모양새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27.2%를 차지한 수출 효자 1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일부 국가는 우리 차를 자기들 나라에서 못 팔게 한다"고 말했다.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깨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1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43만2713대로 전체 수출량(278만2612대)의 51.5%에 달했다.

이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707억8900만 달러 중 49.1%(347억4400만 달러, 약 50조4800억원)를 미국 수출에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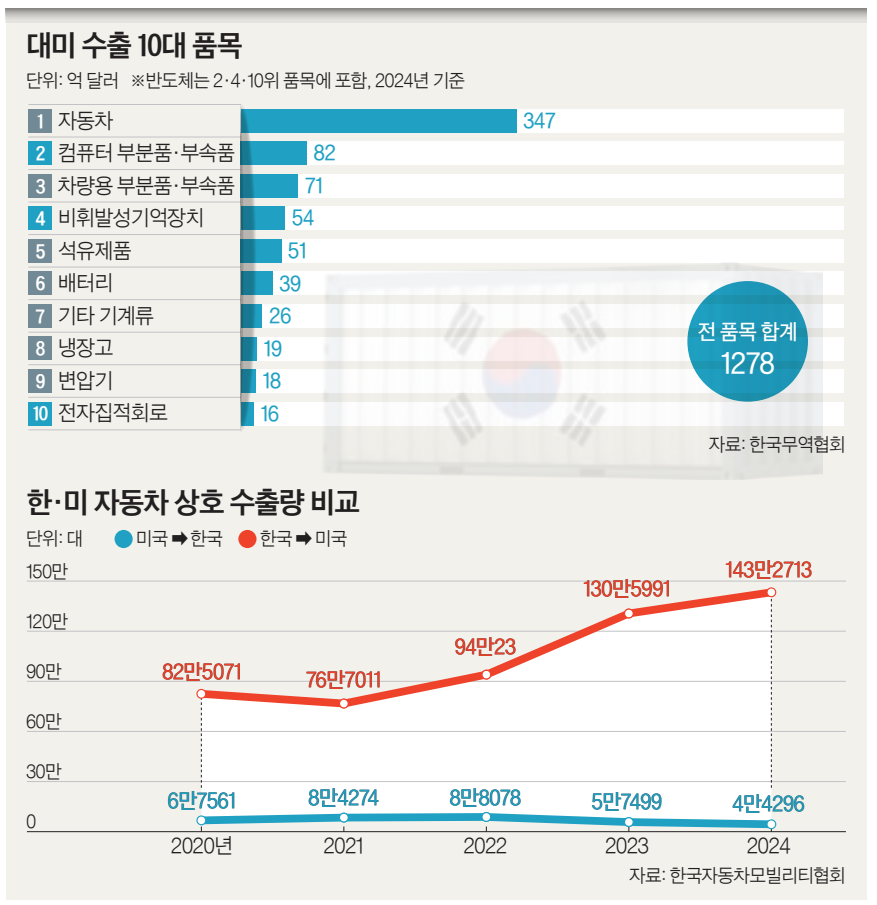
한국은 2020년만 해도 연간 82만5071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4년 만에 수출량이 73.6%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의 대(對)한국 자동차 수출량은 2020년 6만7561대에서 지난해 4만4296대로 줄었다.

현재 양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전기차 포함)에 대해선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에는 25% 관세를 물린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가 부활하면 원가 상승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은 급감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는 최대 19%의 영업이익 감소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동차 수출 쿼터제(할당제)를 도입해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지난해 대미 수출량 143만2713대 중 70%를 할당받으면 연간 100만 대가량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자동차 쿼터제는 관세로 수출이 반 토막 나는 사태를 막고, 국내 일자리 충격도 완화할 고육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스스로 발을 묶는 쿼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두 번째는 자동차 차종별 관세를 차등화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방안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승용차·전기차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로 합의하고, 픽업트럭은 현행보다 관세율을 높이거나 종료 시점을 2040년 이후로 미루는 식으로 협상하자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조기에 끌어올려 지난해 57만 대 수준인 현지 생산량을 수년 내 120만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적극 활용한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에 선출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 상용차에 GM 브랜드를 달고 팔겠다고 밝히면서, 양사 협력이 승용차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효성 기자

이시바 "일본은 다를 것"…미국 관세 회피 기대

트럼프 관세전쟁…"미국이 더 잃어" 일각선 부메랑 우려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발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일본이 (미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5%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가 유예했던 멕시코·캐나다 등은) 마약이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들 국가와 일본의 처지가 다른 만큼 관세 인상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나타낸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노력도 있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은 상당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1조 달러(약 1453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대상에 일본도 포함됐지만, 실제 발효(3월 12일)까지 한 달여가 남은 만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반대로 대미 무역적자국인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뒤 철강 관세의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현재 일본은 한국처럼 '쿼터제 면제'(연간 125만t)를 적용받고 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는 전세계를 '관세 전쟁'의 격랑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미국 현지 기업 일각에도 상당한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업체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들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며 그 여파는 소비자들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내 엇갈린 반응을 전했다.

우선 미국 철강 업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철강제조협회 회장 필립 벨은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철강협회 케빈 뎀시는 이 조치가 예고된 전날 성명에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에 필수적인 미국 철강 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 등 다른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과일·채소용 캔을 만드는 업체들을 대변하는 미국 캔제조업협회 회장 로버트 버드웨이는 "주석 도금 강판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식량 안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전 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글로벌 무역 정책 담당 부회장 티파니 스미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경쟁력을 해치고 미국 제조업체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특히 이는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부양을 모색하는 시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엇갈린 반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따른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재임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는 협상 등을 통해 예외를 적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관세 부과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2021년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알루미늄 규모는 22억5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철강·알루미늄을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기계·자동차부품·수공구 제조업체 등은 비용 증가와 함께 생산량이 34억8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철강에 대한 25% 관세로 미국 내에서 약 8천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철강 회사들은 약 24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철강을 구매하는 산업 부문은 56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땐?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Worldwide 월드와이드 버스

데이빗 한 / 재키 조 / 죠앤 한 / 세라 정 / 애나 김 /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보는 낭만의

동유럽 5개국 9박 10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독일–학문의 도시 하이델베르크, 400년 역사의 도시 뮌헨
오스트리아–모차르트의 고향 길겐, 음악의 도시 비엔나
체코–동화속 마을 체스키크롬로프,
헝가리–아름다운 다뉴브 유람선이 있는 부다페스트

4/9(수)–4/18(금)
$3,490 항공불포함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 11일

아름다운 지중해 휴양도시에서 여유있는 휴식을 즐기고 신비로운 사하라 사막 체험까지

3/19(수)–3/29(토)
$3,790 항공불포함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1차 4/22(화)–5/2(금) / 2차 10/15(수)–10/25(토)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항공 불포함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 항공 불포함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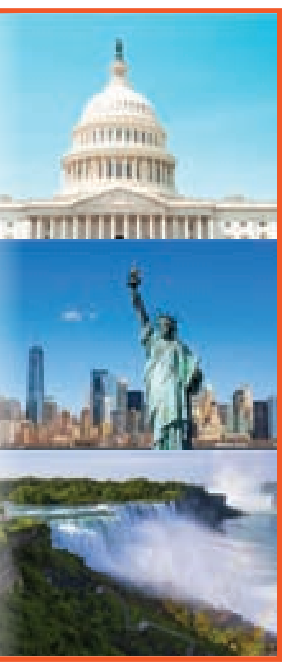
최신 28인승 VIP 리무진버스

제주도 최고호텔 신라호텔

전일정 5성급 딜럭스호텔
(동대문 노보텔–소노캄 여수–소노캄거제–부산그랜드조선–라한경주–제주신라)

다채로운 지역별 특색이 담긴 전통 음식을 찾아가는 맛여행

한스단독 미동부 투어



당일투어 3명이상 출발가능
- **워싱턴 DC $100**
-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 **뉴욕 1박2일** 3/24 출발가능 **$399**
-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요일 출발가능 2/24,3/31 출발가능
-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요일 출발가능 3/5,3/15 출발가능 **$899**
-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출발 4/14,4/21출발가능 **$1,350**

미서부 연합투어

-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 **옐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9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5박6일 $1,250 항공 불포함
2명이상 출발가능 | 월요일 출발

Small Group Tours

숨어있는 보석, 한스와 함께하는

남코카서스 3국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12박13일 6/3(화)–6/15(일) $4,390

코카서스 산맥을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길고 긴 격동적인 역사를 가진 매력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평생에 한번은 꼭 가 봐야 하는 여행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5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 인솔자

- 2/23(일)–3/3(월) 페루일주 8박9일 마감 — 재키 조
- 3/3(월)–3/17(월)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리오 데 자네 마감
- 3/7(금)–3/16(일)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마감 — 죠앤 한
- 3/19(수)–3/29(토)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11일 추천 $3,790 — 죠앤 한
- 3/19(수) - 3/26(수) 튀니지와 사하라 사막 7박8일 추천 $2,890
- 3/25(화)–4/6(월) 일본 12박13일 마감 — 재키 조
- 4/9(수)–4/18(금)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낭만의 동유럽 9박10일 $3,490 — 세라 정
-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 마감 — 애나 김
-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 인솔자
- 4/29(화)–5/9(금)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마감임박 $3,590 — 세라 정
-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 죠앤 한
- 5/7(수)–5/16(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 죠앤 한
-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믹 마감 — 재키 조
- 6/3(화)–6/15(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코카서스3국 12박13일 $4,390 — 죠앤 한
-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라이트 9박10일 마감임박 $5,095 — 재키 조
-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6,595 — 죠앤 한
- 7/12(토)–7/26(토) 백두산+서울시티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5,990 NEW
- 7/12(토)–7/15(화)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럭스 3박4일 $799 NEW (연길–도문–이도백하–백두산(서파, 북파),용정) — 재키 조
- 7/17(목)–7/25(금)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4,500 NEW (북해도–삿포로, 니세코,도야, 후라노)
-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항공포함 $2,190 — 애나 김
- 8/1(금)–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마감임박 $16,400
- 8/1(금)–8/13(수) (케냐,빅토리아폭포,남아공) 아프리카 마감임박 12박13일 $12,900 — 죠앤 한
- 8/1(금)–8/8(금)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투어 7박8일 $5,950 추천
-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 8/4(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 재키 조
-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 8/13(수)–8/19(화) 알라스카 6박7일 항공포함 $3,090 — 세라 정
- 9/4(목)–9/12(금) 발칸 달마시아 투어 8박9일 $3,590 — 세라 정
- 9/8(월)–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 죠앤 한
- 9/8(월)–9/17(수)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 죠앤 한
-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 애나 김
- 9/20(토)–9/28(금)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 재키 조
- 10/7(화)–10/16(목)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동유럽 9박10일 $3,490 — 애나 김
-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 죠앤 한
- 10/15(수)–10/25(토) 한국의 가을 10박11일 $2,990 — 인솔자
-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 세라 정
-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6,495 — 재키 조
-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 죠앤 한
-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 재키 조
- 11/27(목)–11/30(일) 땡스기빙 코스타리카 3박4일 — 세라 정
-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 죠앤 한
- 12/6(토)–12/20(토)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6,590 — 재키 조
- 12/8(월)–12/20(토)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 놓고 "해킹 가능" "불가" 선관위 보안 공방

헌재 7차변론 선관위 보안 공방
정청래 "탄핵, 헌법상 국회 권한"
윤 "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를 놓고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충돌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외부에서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모의 해킹 결과"라며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진술 거부' 이상민, 헌재선 증인 선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백 전 차장이 먼저 "2023년 7~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랐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차장은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백 전 차장은 또 "보안점검 당시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나" "다시 말해 선거인 명부에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등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12345 등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느냐"는 질문엔 "전체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 보안의 취약성은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침투는 국정원 보안컨설팅을 위해 침입 탐지 차단 등 보안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의 해킹"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명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에게 자료를 줘서 저희 서버 자료가 변경됐다면 양쪽 교차 검증으로 드러나는 구조"라고 했다. 또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투·개표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선거망에 대한 실제 해킹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전체 6400여 대 선관위 서버 가운데 300여 대, 5%만 국정원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시간 제약,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서버를 다 볼 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권의 줄탄핵은 정권 파괴 목표"라며 "탄핵은 국회 권한"이란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직접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은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면서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정 위원장도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말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면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5차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계엄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며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간첩 범위를 적국→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익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이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도 잡지 않아 변론을 조기 종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준영·석경민·최서인·박종서 기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윤에 지시받은 적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11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허 소방청장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허 청장이 국회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국무위원 대부분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의견서 등에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엄은 헌법에 기재된 대통령 권한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며 "솔직히 말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김준영·석경민·최서인·박종서 기자

권성동 "국정 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 … 분권형 개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그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예로 들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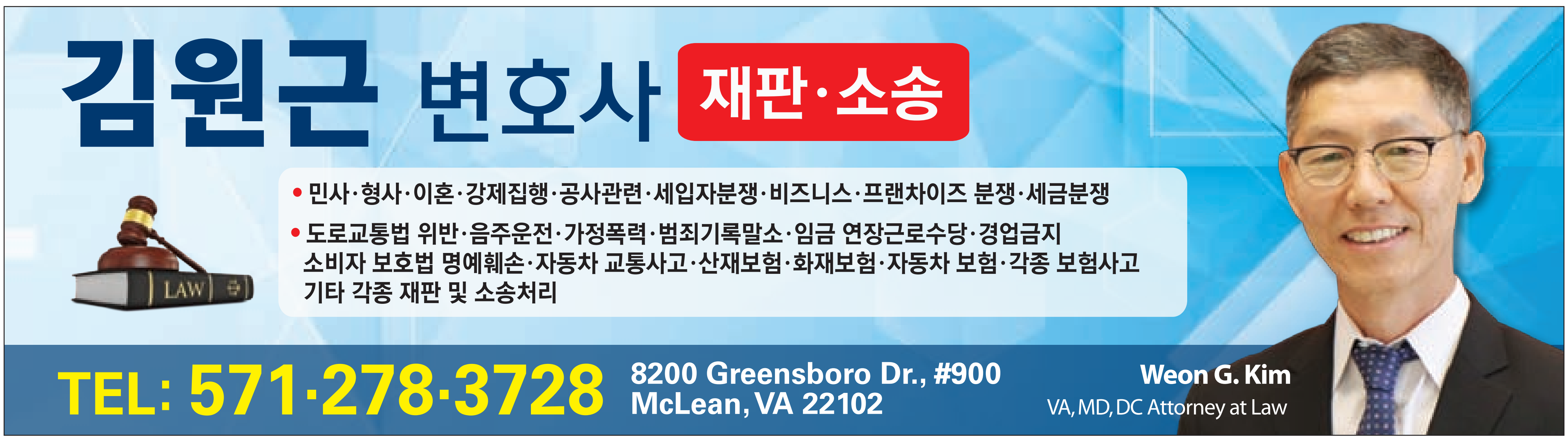
특히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을 18차례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이 대표의 형(刑)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며 "카멜레온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할 어젠다로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협치·공존 가능한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선 선거 일정 일치 등을 제안하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성지원·조수빈 기자



홍장원, 계엄 직후 여권·야권 두루 접촉 … 홍 "정무적 판단"

계엄 전후 3박4일 재구성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이 됐다. 그의 행적과 발언을 놓고 진영에 따라 '의인(義人) vs 배신자'로 보는 시각이 확 나뉜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린 정부 고위 공직자였다. 출발점은 갑작스러운 그의 해임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홍 전 차장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가 술렁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이 전화로 홍 전 차장에게 해임 여부를 묻자, 그는 "전화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국회로 향했다. 그 직후 한 종편 방송의 '홍 전 차장 국회 보고'라는 자막으로 홍 전 차장의 여의도행을 확인한 국정원은 비상이 걸렸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 위원장에게 전화해 "국회 보고가 사실이냐. 그렇다면 나도 가겠다"며 곧장 국회로 향했다.

조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대기하는 동안 홍 전 차장은 일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털어놨다. 여기까지는 여야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홍,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과 문자
6일 "윤, 정치인 체포지시했다" 폭로

홍 전 차장이 경질된 이유를 놓고 주장이 갈린다. 윤 대통령과 국정원 측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경질 사유로 든다. 이들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후 조 원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7시47분엔 서울 마포고 동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12월 7일 KBS 인터뷰에서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서 현재 상황을 타개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권유에 대해선 "북한이 남쪽에 군사 도발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 야당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해임된 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이며, 경질 사유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든 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권에선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 전, 정치권에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홍 전 차장은 12·3 계엄 직후인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박 의원은 현직 정보위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을 지냈다.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도 관련 사실을 흘려 여권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의심도 있다. 자신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한 전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이 정보위에서 체포 지시 사실을 공식화한 12월 6일 오전, 정보위 보고에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부기관을

한동훈, 6일 '대통령 직무정지' 발언
"신뢰할 근거로 체포지시 확인" 강조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바로 홍 전 차장이란 것이다.

당시 한 여권 인사는 "이런 말을 다른 데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너무 답답해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하소연한 게 전부"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이던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다. 그의 발언을 토대로 여권에선 "인맥이 넓은 이 전 실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토로가 정치권에 전파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차장 해임 보도를 보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은 적이 있을 뿐"이라며 "들은 말을 다른 데 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위 보고 전 홍 전 차장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도 통화했다. 다만, 홍 전 차장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소문에 민 전 차장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또 홍 전 차장은 본인의 마포고 동문이자 한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당시 최고위원을 통해 관련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는 전언도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홍 전 차장 증언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라며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의 석연치 않은 행적과는 별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윤 대통령 체포 지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명단 메모는 재작성 논란에 휩싸였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메모 원본은)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며 "메모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조작 의심" 주장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그 메모는 그냥 낙서처럼 내가 기억하려고 했던 메모"라며 "기억나는 대로 진술만 했다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기정·양수민 기자

이재명 띄운 '주4일제' … 스웨덴선 인력 보강 재정부담에 중단

〈요양병원 간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제'란 화두를 던졌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슬란드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0년부터 산업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했다. 현재는 50%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영국도 2022년 61개 기업, 29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다. 2022년 주 4일제를 공식화한 벨기에는 5일 치를 4일에 몰아서 하는 형태다. 근로시간(주 38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이다. 한국도 이미 삼성전자 등 다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엄밀히 주 4일제가 아닌 유연근로제로 분류하는 게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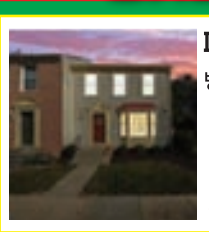
사실 주 4일제를 앞서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2021년 임금 15%를 줄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15년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인력 보강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중단됐다.

결국 한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감축에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노동계에선 '근로시간 40→36→32시간 순차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 단계에서 주 4.5일제만 시행해도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노사정 대타협 수준의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한국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아이슬란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1.7% 수준이고, 인구도 40만 명에 불과하다. 산업 구조 역시 에너지와 어업, 관광업 중심이라 제조업 기반인 한국과 차이가 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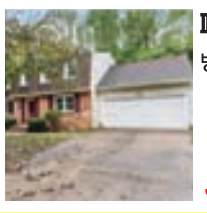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2월 HOT 리스팅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애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매매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한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임대
비엔나
겔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가해 교사 "수업 못하게 해 짜증 …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대전 교사 7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
6개월 질병휴직, 한달도 안돼 복귀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양의 빈소를 찾은 친구들이 조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양 아버지. 김성태 객원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기자 브리핑에서 하늘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병원 치료를 받기 전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육종명 대전 서부서장은 "A씨가 전날 목 부위 봉합수술에 들어가기 전 피의자 진술을 받았다"며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한 뒤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의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21일 만인 12월 30일 복직했다. 육 서장은 "A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해서 복직 후 3일 후부터 짜증이 났다"며 "(범행 당일)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 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복직 이후에도 이상 증세를 보였다. 지난 5일에는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6일에는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학교 측은 이튿날 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10일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했다. 하지만 A씨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권고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다. 교육계가 "위험 징후가 있는 교사도 교장이 강제로 일을 못 하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한 이유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사가 (휴직 요인이 된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직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고 했다. A씨도 복직의 근거로 진단서를 제출했었다. 교사 출신인 전수민 변호사는 "현재는 질환을 이유로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교사 징계 중 해임, 파면 등이 아닌 즉각 분리가 가능한 조치를 법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7335명이었다.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38)씨는 "가해 교사의 완벽한 계획 살인으로 생각한다"며 "그 피해자가 내 딸이라는 게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하게 웃던 하늘이가 그날 저녁 하늘의 별이 됐다"며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심신 미약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는 '하늘이법' 입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노트북·컴퓨터 등을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하늘양 시신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오전 부검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최종권·김방현 기자, 최민지 기자

"우리애 학교에도 저런 교사 있을라" … 불안한 학부모들, 학교 불신 확산

"학교, 경비없는 쇼핑몰보다 못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두렵다. 이제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나."

9세·8세 남매를 키우는 김모(35)씨는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받은 충격에 대해 11일 이렇게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회장을 맡은 그는 "엄마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주변에도 저런 교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다"고 전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숨진 김하늘(7)양을 애도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에서 초등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모(42)씨는 "부모들은 똑같이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학교 돌봄을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은 하루빨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맘카페에 "(학교가)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고 교사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아이 소재를 잘 알지 못한다. 교문엔 나이 든 경비(학교 보안관)만 있을 뿐"이라며 "경비 없는 쇼핑몰보다 못하다"고 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제론 아이마다 귀가 시간이 다르고 인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자율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학교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 "안전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초3 아들 엄마 김혜정(40)씨는 "그동안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 '도청 앱'(자녀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쓰지 않았는데 대전 사건을 듣고 당장 아이 휴대전화에 깔았다"고 전했다.

이보람·서지원 기자

야당, 동력 잃은 내란특검 대신 '명태균 특검법' 발의

"오세훈·홍준표·이준석 날릴 카드"
수사 대상 '여론조작·선거개입' 적시
여당 "민주당 특검 중독증은 불치병"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명의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폭로된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선거 과정에서 관계를 맺으며 공천 및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논란이다.

야권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7개를 적시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명씨가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수사 중 단서가 나오는 다른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지 수사 근거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김건희 특검과 입법 동력이 약해진 내란 특검의 대체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차 내란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차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 때는 198명 찬성(정족수 200명)을 받아 여권에서 6개 이탈표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구속 후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마당에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인식이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다 날릴 수 있고 역풍등 부작용은 적은 카드"라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과 조기 대선 일정이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지율이 낮으니, 그 친구들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보현·이창훈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1474 Hampton Hill Cir Mcl	COMING SOON	$1.25M	2월6일 마켓에 나올 예정, 맥클린에서 가장 인기있고,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퍼를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정식으로 마켓에 올릴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들여 집 Renovation 했음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CONTRACT	$1.2M	마켓에 내 놓은 날 좋은 오퍼 받아 바로 계약. 오픈하우스 취소, 셀러 So Happy. SELL NEW 1/21/2025 세틀먼트 예정
Fairfax, VA	CONTRACT	$850K	위에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소개. 4명의 경쟁을 뚫고 득템. 이기는 오퍼 자신있음 BUY
10** Salt Meadow McLean, VA	SOLD	$2.8M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20일 내로 세틀먼트 완료. BUY 1/6/2025 세틀먼트 완료
McLean, VA	SOLD	$900K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해 달라고 한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좋은 집이 나와 소개했더니 바로 구입. 바로 3년 렌트 연결. 1/3/2025 세틀먼트 BUY
McLean, VA	SOLD	$900K	계약 후 10일 이내 세틀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4,250) 렌트끼고 살 투자자, SELL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사업체 매매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소	기간	세입자
★ McLean, VA NEW	3년	집 내부를 보지 않고 구입. 공실없이 바로 렌트. 구입/렌트 모두 에이전트 로리만 믿고 감. 렌트 투자용 집 사고 싶은 분 연락바람. 주재원이 좋아할 만한 집 구입 후 바로 장기렌트 연결 자신있음
★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타주에서 오는 교민
★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McLean, VA	3년	주재원
★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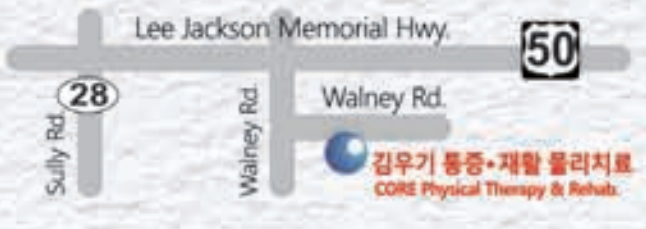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우리말 바루기

'창난젓' 으로 불러 주세요

명태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생선도 없다. 잡는 시기나 가공법, 색깔 등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이기도 하다. '내장은 창란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강산에의 '명태'란 노랫말에도 나오듯 젓갈로도 친숙하다.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명태로 만드는 젓갈은 크게 세 종류다. 아가미로는 '아감젓'을 만들 수 있다. '명란젓'은 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것이다. 또 하나의 재료는 창자다.

이 젓갈을 '창란젓'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명태 창자를 이르는 말은 '창란'이 아니라 '창난'이다. 젓갈 이름도 당연히 '창난젓'이지만 '창란젓'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란(明卵)젓'에 이끌려 '창란젓'으로 쓰기 쉽다. '창난'은 명태 창자를 일컫는 순우리말로 '난'은 알(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창난'은 '명란'처럼 알이 아니므로 '창란'으로 쓰면 안 된다.

'토하젓'과 '토화젓'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생이라는 민물 새우로 만든 젓갈을 '토화젓'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새우 하(蝦)'자를 써서 '토하(土蝦)젓'으로 표기해야 한다. '토화(土花)젓'은 굴과의 바닷물조개인 미네굴로 담근 젓갈을 말한다.

기자의 눈

위기 대응 실패, 예산 문제가 아니다

정윤재 사회부 기자

LA시의 위기 대응 체계가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달 대형 산불이 한창 확산하던 당시 한 주류 언론은 LA시소방국의 75대 이상의 소방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 주차장에 방치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대응 인력은 충분했지만, 차량 고장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4~2025 회계연도에서 LA시는 LA소방국(LAFD) 예산을 1760만 달러 삭감했고, 그 결과 긴급 차량 정비가 중단됐다고도 했다. LAFD 국장은 "예산 삭감이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국 노조 역시 "출동 가능한 장비만 충분했어도 더 많은 대응이 가능했다"며 대응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였을까. 최근 LA시는 산불 복구 책임자로 스티브 소보로프를 임명하고 90일 근무에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시장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쪽에서는 화재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소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복구 책임자가 단 3개월 근무로 5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배스 시장은 결정을 철회했고, 소보로프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초에 50만 달러 지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기부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산불 복구를 위한 기부금이 특정 개인의 보수로 쓰일 뻔했다"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LA시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보수 지급 계획을 철회해야 했다.

소보로프의 역할 또한 불명확했다. 배스 시장은 처음에는 그를 "산불 피해 복구 총책임자"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퍼시픽 팰리세이즈 역사적 상업지구 복구"로 업무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소보로프 본인은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광범위한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의 핵심 인물이 자기 역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시 정부의 행정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행정의 혼선은 홈리스 문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LA시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LA시의 홈리스 인구는 4만5252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노숙자 보호소 입소자는 17.7% 증가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여전히 많다. 단순히 시설 수용 인원을 늘린 것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홈리스 증가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홈리스 증가율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LA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선언하며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LA의 산불 복구 기금 삭감을 검토 중이다.

LA시의 정책은 반복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홈리스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소방 예산을 삭감했고,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연방 지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50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려 했고, 불명확한 홈리스 증가 통계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정책 기조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문제는 예산 부족이 아니다. 시 정부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보다 정치적 선언에 집중하고 있다. LA시는 홈리스 위기를 단순한 숫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J네트워크

황금색 쇼군 투구와 '아첨의 기술'

정원석 도쿄 특파원

"TV에서 봤을 때는 개성도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명인을 만났을 때 쓸 법한 표현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다. 현지시간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인상이 어떠한가"란 질문에 농담을 섞어 표현했고, 기자회견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실제로 만나보니 매우 성실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였다"며 추켜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 당할 당시에 찍힌 사진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라고 꼽으면서 "대통령께선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그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영어로 "신이 당신을 구한 이유다(And that is why God saved you)"라고 통역되면서 극심한 '립서비스'가 되고 말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의 기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흡족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실제로 차에서 내리는 이시바 총리를 맞이하며 악수를 하던 순간, 한 취재진이 "일본에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멀리서 큰 소리로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일본을 사랑해요"라고 두 번 반복했다.

이시바 총리가 선물로 건넨 황금 투구는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구축하자는 문구의 상징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일본 외무성은 이시바 총리의 출신지인 돗토리현(鳥取)의 유명한 수공예품 노포인 '닝교노하나후사(人形のはなふさ)'에 연락해 황금색 투구를 주문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공을 들여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는 면모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일본과의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과 트럼프를 추켜세워줄 것,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아 준비했다고 한다. 실리 외교를 추구하겠다며 정적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스타일까지 고스란히 품어 준비한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고라도 실리를 취한다는 것으로 10일 NHK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전달보다 5%p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정상외교 '올스톱' 상태인 한국은 인제 와서 전화 통화를 준비한다는데, 아부건 뭐건 사전에 준비하고 볼 일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텍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 게인스빌 싱글 레이크 매나사스 골프장내 $1,060,000
방4, 화4.5, 차고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덱
• 알디싱글 $1,250,000
방5, 화4.5, 차고2, 4,630 sqft, 2016,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집 같음
Open House
2/16 (SUN) 1PM-4PM
챈틀리 타운 $779,000
방4, 화3.5, 차고2, 2,900 sqft, 2005, 전부 업그레이드, 앤드유닛, 1st onwer, 내부외부 잘 관리 최상, 최고 학군 짐, 코스코, 50/28, Dulles Aiport
25180 WHIPPOORWILL TER, CHANTILLY, VA 20152

모든 비지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게인스빌 성업중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켓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나라 두 동강 낸 윤석열·이재명 두 '빌런' 동시 정리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중 '배신자' 낙인
후회 없지만 박근혜 오해 풀고파
여야 모두 사당화·진영 논리 빠져
지금 필요한 건 타협·설득의 정치

지난 6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이어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갈등, 탄핵 이후 정국의 해법 등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전민규 기자

한국 정치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유력 여권 정치인이 현직 대통령과 맞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 사례는 드물지 않다. 김영삼 때 이회창, 이명박 때 박근혜가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MB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마다 갈등을 빚으며 '여당 내 야당'으로 차별화에 성공, 차기 대통령이 됐다. 이 과정에서 MB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진 않았다.

유승민(67) 전 의원 상황은 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맞서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달라"며 유 전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고, 이 발언 13일 만에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계엄 전후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유 전 의원을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 꼽았다. 지난 10일 차기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리얼미터)에서도 김문수 장관(25.1%) 다음(11.1%)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히면 지지도는 초라하다. 지난 5일 '특집 썰전'(JTBC)에 함께 출연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본선 경쟁력은 있지만 (국민의힘이) 후보로 만들어줄 생각은 없는 거 같다"고 말한 이유다.

이런데도 그는 최근 방송 출연 때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중도 경쟁력은 내게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다. 강경 보수층 비토를 뚫고 후보가 될 복안이 있는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나라가 좌우로 두 동강 난 지금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난 6일 그를 만나 물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회고록』(2024)에서 그를 재차 비판한 부분과 관련해 언론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오해는 바로잡고 싶다"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근혜 업적 공무원연금 통과했지만

-회고록 중 가장 걸리는 부분은.

"오해가 크더라.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어 가급적 자제했는데 '배신의 정치'로 지목당한 2015년 5월 국회법 개정안만큼은 짚고 싶다.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말 셀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걸 다 물리치고, 마지막 순간 이거(국회법) 하나 받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야당이던 박 대통령도 주장하던 내용이었다. 조해진 부대표 통해 여야 합의사항을 바로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밤늦게서야 반대 의사를 알려왔다고 들었다. 난 의원총회에 참석 중이라 청와대 전화를 못 받았다."

※회고록엔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권을 갖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건 국회가 대통령·정부 손발을 묶는 삼권분립에 위배된 것이라 협상이 진행 중이던 5월 28일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유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의논조차 안 하는 원내대표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배신자 낙인만 남았는데.

"후회는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 여당 된 후엔 "우리가 이거밖에 못 하나" 싶어 잘하고 싶은 욕심에 정부 비판을 하다 보니 비주류 위치에 서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당일은 너무 긴박해 박 대통령 요구를 받을 순간도 없었지만, 만약 뒤집었다면 개혁안은 물 건너갔다. 박 대통령 보기에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통과를 위해 약간의 양보는 불가피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했다. 지금 필요한 타협의 정치다."

-앞서 4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국회 연설도 문제가 됐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대놓고 자진 탈당을 요구하던 20대 총선(2016년)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이 그 연설을 '새누리당 정체성과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당 정강 위배는커녕 오히려 일치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2월 김무성 당 대표 역시 연설 때 언급하는 등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었다."

-당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문재인 정부 실패 사례가 됐는데.

"문 정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밖에 줄 서 있는 청년을 제치고 내부 비정규직을 공정한 경쟁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해서 문제였다.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과보호는 줄이고 비정규직 여건은 개선하는 방향이 맞다. 다만 강경한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끌어내려면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말을 바꾼 적도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내놓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호황기나 가능한데 무조건 하자는 식으로 잘못 전달했다. 이듬해 중기중앙회 행사에 가서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한동훈의 반기업 행보

-생각이 바뀐 건가.

"난 조금 바뀌었고, 당은 그대로다. 재밌는 얘기하나 할까. 2011년 전당대회 출마 때 당시 정경유착 등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씌워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깨기 위해 청년의무 고용할당제 등 보수가 거부감 느낄 법한 내용과 센 표현을 일부러 넣어 연설했다. 그땐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았다. 오히려 친박이 열심히 도왔다. 불과 4년 뒤 박 대통령이 나를 떨어뜨리려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면서 의원 겸직 장관 5명을 보냈는데도 내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니 그제야 문제 삼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 편인지가 유일한 지지의 선택 기준이다. 진짜로 정치 철학이나 정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여야 모두 이런 비슷한 편 가르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제일 큰 건 공천이다. 공천에 목을 매니 당의 실질적 권력자에 줄 선다. 당이 특정인 중심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당화를 못 고치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문재인)·친이(이재명) 타령, 우리도 친이(이명박)·친박(박근혜) 하다 친윤(윤석열)·친한(한동훈)까지 왔다. 공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 선출도 포함해서."

-단점만 서로 닮나. '로톡' 대응 등 규제 관련은 여야가 똑같다.

"법률 플랫폼 로톡 규제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자유시장 경제와 친기업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질질 끌면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국민의힘이 판·검사 당이라서인지 로톡에 우호적 발언 하나 안 내놓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여야 정치권 모두 법률시장 불합리에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게 카르텔이다. 국민 삶에 도움되는 개혁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민간 경쟁을 말살시키면서 이익집단의 지대 추구를 방관했다. 정치가 계속 이걸 덮으면 경제가 추락하고 나라가 망한다."

-방법이 뭘까.

"정치의 갈등 조정 기능 복원이다.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정치다. 교육·노동·사법 등 개혁 방향을 알고 해법도 있는데 반발과 저항이 심해 표 때문에 손 못 대는 딜레마가 분명 있다. 좋은 처방과 함께 개혁 대상의 양보를 받아낼 보상을 줘야 한다. 여기에 민심의 지지까지 받으면 협상하기 쉽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국민 60~65%가 찬성하는 개혁안을 내놓으면 민주당이 무시 못 한다. 물론 '같이 욕먹자'고 야당 꼬시려면 평소 원했던 거 하나 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런 거다. 이렇게 사회가 정상화하려면 지금 미·중처럼 국가가 혁신에 앞장서 민간을 돕는 기업가형 국가로 나가야 한다."

"공수처·헌재 엉터리짓 문제"

-여야 갈등이 훨씬 심한데 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 정치 탓에 대화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윤석열·이재명 시대가 빨리 끝나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복원된다. 계엄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헌재)가 엉터리 짓을 많이 했다. 이재명 재판은 지연됐다.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로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양극단에 서서 혐오를 조장해온 윤석열·이재명 두 빌런을 동시에 정리해야 한다."

-최근 보수 결집은 불리할 텐데.

"불리하다. 다만 거기 갇린 보수의 이재명 포비아의 실체를 잘 봐야 한다.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에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 등 친북·친중 행보를 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위험하다고 불안해한다.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좌클릭 우왕좌왕하며 진정성에 의심을 받지만 우클릭 행보마다 먹힌다.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제일 오른쪽 김문수겠냐, 아니면 중도 소구력 있는 나겠느냐. 보수 결집과 무관하게 중도층은 탄핵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었다. 강성 보수 후보로는 결과가 뻔하다. 이 논리로 대구·경북 포함 국민의힘 당원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원은 정권을 다시 잡겠다는 권력 의지가 강하다. 거기에 호소할 생각이다."

안혜리 논설위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571-225-011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빵빵)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사 설

여당의 개헌 제안, 국회 논의 물꼬 트는 계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자"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법 개정 ▶소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도 제안했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선 '87년 체제'가 이제 작동 불능 단계에 왔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1987년 개헌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전부 실패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건 개인 역량의 문제라기보다 권력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개헌특위 위원장에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면서 개헌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 대선 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다. 어제 권 원내대표의 개헌 제안은 이런 여권의 흐름을 공식화한 것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원로들도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 원로 9명은 지난 3일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바야흐로 개헌 논의의 백화제방(百花齊放)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 자세다. 민주당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엔 상당수 의원이 동감하지만, 이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87년 체제 한계 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이재명 대표도 개헌 논의 전향적으로 임하길

이 대표도 눈앞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절박한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이 진공 상태인 지금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개헌의 적기다.

이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연설이 이 대표 비판에 치중한 건 적절치 않았다. 적지 않은 여당 과오에 대한 자성 없이 모든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감받기 힘들다.

더구나 개헌에 이 대표 도움이 필수적이라면 그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포용적 언어를 구사하는 게 현명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된 일곱 살 초등학생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의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린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어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

자해를 시도한 살인범은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가족과 경찰에게 발견됐다.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규 수업에 이은 돌봄 교실을 마치고 학원 버스를 타기 위해 홀로 이동하는 순간 범죄 피해자가 됐다. 살인범인 교사는 201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봄 교실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를 노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발생 직전 살인범의 위험 징후가 교육당국에 포착됐었다는 점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가 정신질환에 따른 폭력성을 보일 때 학생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뒤늦은 후회다. 교육 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범행 나흘 전 웅크려 앉아 있던 자신의 안위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난동을 부렸다. 이후 학교 측은 여교사에게 재휴직을 권고했고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으나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가 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수업은 중단시켰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 수업 이후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살인범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시작했다가 한 달이 되지 않아 복직한 경위도 의문스럽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하늘양 부모가 아동 보호를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정작 위기 상황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하늘양의 부모는 딸의 전화로 비상벨을 울리고 실시간으로 현장음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하늘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 학교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기사로 써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최소한 학교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예쁜 별로 갔을 하늘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재명의 일관성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정치에서 확실성은 불확실성이다. 지도자라면 의당 분명한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는데도 입장을 바꾸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다. 역사가 게리 윌스는 "이념적 일관성이나 심지어 정책적 지속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게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경제계획을 마치 (자신의) 소아마비 치료약을 바꾸듯이 변경했다"(『대통령의 조건』)고 썼다.

정치인의 '일관성 없음의 일관성', 그 자체를 크게 뭐라고 할 순 없다는 의미다. 비교적 근미래까지 내다볼 예지력의 소유자이거나, 특정 입장을 고수했는데 딱 맞는 시대가 도래하는 운의 소유자가 아닌 한 변화는 필연이다. 시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음의 일관성'은 그러나 다소 변칙적이다. 입장 선회가 대단히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지만, 진정한 입장 선회인지 의아할 정도로 그의 말에 반하는 현실이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도 그렇다.

전자가 초단기 일관성 차원이라면, 후자는 일관성 자체 차원이다. 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민주당이 배포한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란 4000자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대선 공약 해설서 같았는데, 질문은 존중어, 답변은 명사형 종결어미를 쓴 평어체 방식을 택한 게 특이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셨는데, 대일 외교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라고 묻고 "튼튼한 한·미·일 안보 연대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없음"이라고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초단기 일관성 차원은 많이들 지적한 주 52시간제 행보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18일 만에 돌아갔다. 그사이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한 일도 있다. Q&A엔 가타부타 별말 없이 "진보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만 적었다.

일관성 자체 차원으론 개헌을 들 수 있다. Q&A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함.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함"이라고 돼 있지만, 그의 최근 말("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 주변의 말(박지원, "개헌보다 정권 교체가 시급")을 종합하면 조만간 개헌하자는 쪽은 아니다. 동의하는 건 '개헌 논의'이지, 개헌 자체는 아니다. 실제 개헌 동력은 이 대표로 인해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단결과 화합을 기반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수권 정당으로 발전 중"이란 주장도 보였지만, 유시민이 '신(新) 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을 향해 각각 "이 대표한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을 많이 보라"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쏘아붙인 게 며칠 전이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친형 발언으로 '민주파출소'에 갇혔다고 호소 중이다. 경제정책을 두고도 성장과 기업 발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상법 개정 중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경제 관련 '악법'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가로막힌 일도 있었다.

사법부 둘러싼 극한 사회 분열
안보 위협 대비 대신 정쟁 매몰
"갈등 속 약한 순간 공격당한다"

정치인은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데, 이 대표는 발을 봐야 할 정도의 말인가 싶은 거다. "'존경하는 박근혜'라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발언의 잔향도 여전하다.

당시 민주당은 "'존경하는'이란 단순한 수사(修辭)"라고 해명했다. 지금의 발언도 정치적 수사 아닐까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이 대표와 싸운다. 그가 풀어야 할 업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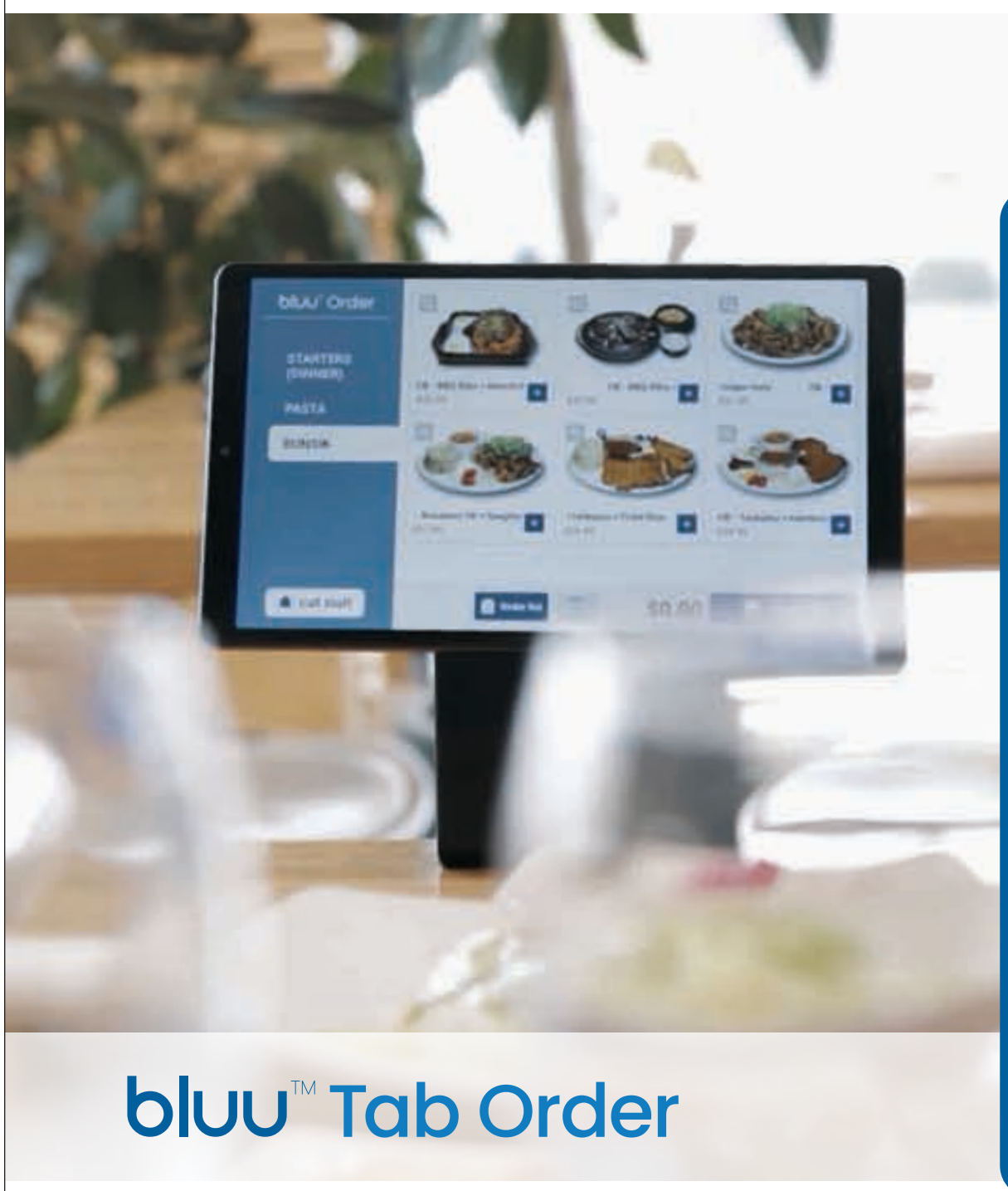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bluu

www.ebluu.com



bluu™ Tab Order

30th ANNIVERSARY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총 $1,500 상당의 10”태블릿 5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퀵서비스 레스토랑

레스토랑 테이블 사이드 주문 서비스의 혁신

편리함
손님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실수 감소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함으로써 잘못된 주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식사 시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고객 경험 향상
편안한 환경에서 주문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bluu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8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CSM@ebluu.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불안 잠재우려면, 먼저 '걱정·행복일지' 써보세요

불안은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signal)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불안에 사로잡혀 평정을 잃으면 이는 감정적인 고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불안감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불안의 감정은 우리 삶을 더욱 좌지우지하고 우리 삶의 행동반경과 선택의 자유로움이 현격하게 제한되고 만다. 그렇다면 앞날의 불확실함에 대한 버거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에 대처할 수 있을까.

불안에 대처하는 4가지 방법

언어로 감정 표현하면 긴장 완화

건강한 음식 먹기 등 행동 변화주기

'지금 이 순간' 몸의 움직임 관찰

주변 둘러보며 현재에 다시 집중

감정 마냥 억누르려 하면 역효과

첫째,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와 같이 이름을 붙여 본다. 공포·불안·분노·슬픔·자책·외로움·좌절감·혼란감 등, 다루기 힘든 감정과 생각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종종 다시 마음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마냥 억누르려 하면, 마치 용수철처럼 곧 다시 튀어오르기 쉽다. 대신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관찰하고, "나는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나는 머리가 아프다는 신체감각을 느끼고 있어"와 같이 언어의 형태로 표현해 보자. 나 자신을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막연한 긴장과 고통의 강도를 좀 더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 마음이 산란해져 집중이 어렵다면 걱정일지(오늘 걱정한 것 1줄 적기)를 기록하고 하루 1회 규칙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불안·걱정에 소모하는 시간-에너지 자원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행복일지(오늘 있었던 좋은 일 1줄 적기)도 같은 방식으로 해, 저하된 자기효능감(나는 취약하고 무력하다)과 앞날의 잠재적 위협-부정적 결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성의 균형맞추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불안·걱정에 대처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value)를 실현하기 위해, 나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우선 지금 나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불안·걱정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존중·유머·인내·용기·정직, 사람들과 서로 아끼고 돌보기, 친절 등의 가치(value) 중 어떠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해 본다.

다음으로는 내가 걱정하는 일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 본다. 최선의 상황 또한 생각해 보고, 최악의 상황-최선의 상황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각각에 대한 대처계획을 세워 본다.

나아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 실현을 위해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중 변경하거나/시작하거나/중단하거나/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하거나 줄여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실천한다.

윤제연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 2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정상체중 효과·부작용 검증 안돼… 득보단 실 클 수도

다이어트 키워드 팩트체크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이 소망하는 목표 중 하나다. 신년 계획 목록에 빠지지 않고 오른다. 손에 잘 잡히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쉽게 살을 빼는 방법을 갈구한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트렌드로 이어진다.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칼로리커팅제, 저탄고지 등 매년 다이어트 트렌드도 달라진다. 특히 올해는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고비' '혈당 스파이크' '간헐적 단식'이 주목받았다. 2024년을 달군 다이어트 키워드를 짚어봤다.

출처: GettyImagesBank

위고비
정상 체중에서 효과·부작용은 '글쎄'

위고비(Wegovy)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출시 이전부터 이례적인 관심을 모은 비만치료제다. 강력한 인슐린 분비 자극 호르몬인 GLP-1의 성질을 이용한 약제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늘려 혈당을 낮추기도 하지만 소화기관 운동과 식욕을 억제해 포만감은 빨리 일으키면서도 배고픔은 늦추는 성질이 있다. 배가 불러 적게 먹는 효과다. 위고비의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당뇨가 없는 과체중 성인 대상으로 68주간 이뤄진 임상시험 결과 평균 15.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전 버전인 삭센다(6.4%) 대비 효과는 2배가 넘고 투약(주사) 간격은 주 1회로 늘려 효과와 편의성까지 잡았다.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위고비 열풍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정상 체중인 사람의 미용 목적 사용이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kg/㎡)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일 때만 처방할 수 있다. 정상 체중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는 "위고비는 정상 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체중 감량 효과와 부작용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체중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거의 체중이 줄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부작용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는 "메슥거림, 구토, 설사, 변비 등 소화기 부작용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이고 드물게 췌장염이나 담석증 등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혈당 스파이크 적은 음식 섭취
체중 감량 효과 과학적 근거 없어
간헐적 단식은 전문가들도 추천

혈당 스파이크
집착 시 영양 불균형 우려

혈당 스파이크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해서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논리다. 급기야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찾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선 당 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의 다이어트 목적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당 지수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다이어트라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박 교수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고도비만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 관리는 잘됐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중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당 지수에만 집착하다 보니 육류나 포화지방 섭취는 많아진 경우였다"며 "전체 영양소의 균형이나 전반적인 열량 섭취가 중요하지 체중 조절에 탄수화물만 중요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 여부를 측정해 섭취하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혈당 스파이크를 고려한 다이어트는 단지 케이크·가공식품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의 일부가 당 지수가 높다는 데서 온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간헐적 단식
먹는 것보단 비우는 데 초점

간헐적 단식은 오래 유지되고 있는 다이어트 트렌드다. 일정 비율의 식사와 단식 시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다이어트다.

그중에서도 16:8 단식이 핫하다. 하루 중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16:8 단식으로는 ▶오전 10~12시에 점심, 오후 6~8시에 저녁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 방법 ▶오전 6~7시에 아침, 오후 2~3시 중에 점심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 방법이 통용된다.

간헐적 단식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박 교수는 "16:8 단식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기도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고 합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시간제한 다이어트"라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한 끼를 굶는 것이 추천되진 않는다. 야식을 먹지 않고, 비워주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무조건 두 끼만 먹고 하는 방법은 아니고 굳이 16:8이 아니더라도 12:12 단식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헐적 단식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한 끼의 집중적인 섭취다. 서 교수는 "간헐적 단식은 지속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그대로거나 더 많아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장훈 기자

» 1면 '불안'에서 이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운동하기와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기,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부 전하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서 함께 하기등 보다 간단한 방법부터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다.

셋째, 지금 현재 내 신체의 감각을 집중하여 관찰하면서, 불안·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나의 주의를 가져와 머무른다. 지금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여전히 관찰하는 상태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의 감각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면, 앉은 상태 그대로 발바닥을 땅바닥에 굳게 디뎌 본다. 힘을 빼고 구부러져 있던 등을 다시 곧게 펴고 앉는다. 무릎 위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양손의 손바닥과 손가락을 서로 마주 대고 가볍게 부딪히면서 움직임과 부딪힘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팔과 목을 천천히 펴서 스트레칭하고, 움츠려 굳어져 있던 어깨를 천천히 돌려 본다. 배를 천천히 부풀리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한다.

넷째, 지금 현재 내 몸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오감으로 관찰하고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다시 주의를 집중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던 눈을 들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방을 둘러보자. 지금 나의 눈에 들어오는 물건 다섯 가지를 관찰한다. 마치 나의 눈이 카메라의 렌즈가 된 것처럼,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간략히 묘사하거나 영상 자막 문구를 작성해 본다. 이어 지금 나의 귀에 들려오는 3~4가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떠한 소리인지 알아맞혀 본다. 지금 코와 입으로 느껴지는 냄새와 맛 또한 알아차린다. 지금의 공간에서 나의 시각/청각/후각 경험으로 주의를 모은 후, 지금 이 순간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고, 불안·걱정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집중한다.

감정보다 행동 통제하기가 더 쉬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온전히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포와 불안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행동에 옮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빨라도 늦어도 문제 … 또래보다 10㎝ 이상 작으면 저신장증 치료해야

자녀 성장 핵심 정보 자녀의 키 성장은 부모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성조숙증'도, 성장이 더딘 '저신장증'도 부모의 걱정을 키우는 걸림돌이다. 둘 다 성장 곡선의 균형이 깨져 결과적으로 원하는 만큼 키가 자라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평소 자녀의 성장 속도를 유심히 관찰해 혹시 모를 성장 장애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장 핵심 정보를 짚어본다.

출처: GettyImagesBank

자녀의 키가 빨리 큰다고 안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성장 속도는 너무 빨라도, 늦어도 문제다. 또래보다 훌쩍 자란 아이의 키를 보고 마냥 좋아해선 안 된다. 이른 사춘기가 시작되는 '성조숙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조기에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사춘기가 또래보다 빨리 찾아온 상태다. 사춘기는 성장기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이 시기가 유독 빨리 시작됐다면 2차 성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골격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성장이 멈출 수 있다.

또래보다 성장 빠르면 '성조숙증'

성조숙증을 판단할 땐 2차 성징 시기가 중요하다.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조숙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여아는 유방이 발달하고, 남아는 고환이 커지면서 음모가 생겨난다. 성조숙증일 경우 키 성장 속도가 또래보다 빠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앞당기고 아이의 최종 키를 작게 만든다. 성조숙증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한다. 유전적인 소인과 비만, 식습관, 환경호르몬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히 정립된 건 없다. 여아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성조숙증인 경우가 90% 이상이다.

다행히 성조숙증 문제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면 3~4주 간격으로 성호르몬 억제제 주사를 맞는 치료가 이뤄진다.

치료 기간은 통상 2~5년이다. 여아는 11세 전후, 남아는 12세 전후로 치료를 종료하는 게 일반적이다. 치료 시기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자녀의 발육 상태가 지나치게 빠른 것 같다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조숙증, 성장판 닫히는 속도 당겨
여 8세, 남 9세 이전 2차성징땐 치료
저신장증은 성장호르몬 주사 효과

반대로 자녀의 성장 속도가 더디다면 흔히 저신장증을 의심한다. 저신장증은 같은 성별·연령대를 기준으로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키가 큰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세웠을 때 뒤에서 3번째 미만인 아이다. 또래의 평균 키보다 10㎝ 이상 작을 때를 말한다. 저신장증은 성조숙증과 달리 사춘기가 늦게 시작돼 발육이 느린 상태다. 저신장이 성조숙증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치료가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가 되면 자란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저신장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성장호르몬 결핍과 같은 병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부모의 키가 작아서 나타나는 가족성 저신장이나 체질성 성장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료가 필요한지는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히 판별한다. 우선 왼쪽 손목의 X선 사진을 촬영해 뼈 나이를 측정한다. 성장호르몬 결핍은 혈액검사로 파악하는데, 저신장증을 진단받으면 보통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를 진행한다. 성장판이 충분히 열려 있고, 치료 기간이 길수록 효과적이다.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최종 성인 키가 커지는 것이 치료의 목표지만, 원하는 만큼 키를 키워주는 만능 주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Tip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의 바른 성장 5계명

-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줄이기
- 일조량은 충분히, 하루 30분 이상 햇빛 쐬기
- 건강한 식단, 하루 세끼 꼭 먹기

자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저신장증 일찍 치료할수록 키 커져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성장 곡선을 결정한다. 성조숙증·저신장증에서 벗어나려면 부모가 아이의 키 성장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기록한 자녀의 성장 기록은 성장 장애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 발육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아이의 키가 몇 ㎝씩 크는지 확인한다.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 역시 중요하다.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핵심이다. 특히 소아가 비만이면 사춘기가 일찍 와 최종 신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성장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 줄넘기·수영·체조와 농구·배드민턴이 도움된다. 음식을 먹을 땐 섬유질이 많고 저지방의 고단백 식사를 챙긴다. 콩·채소·해조류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리고, 햄버거·라면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는 피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어간다. **신영경 기자**

겨울철 급성 뇌졸중, '혈관 내 수술'로 골든타임 잡는다

뇌졸중은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다. 아침·저녁 혹은 실내·외의 큰 기온 차이로 혈압 상승이 나타나고, 혈중 응고 인자가 늘어나며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심장 부정맥 등이 악화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진다.

뇌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는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액이 뇌 조직에 고여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한다.

뇌졸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물건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정도로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마비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생겼거나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증상은 수분 정도로 짧게 나타났다 사라졌어도 안심하긴 이르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뚫린 상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령이거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음주·흡연·과로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신경과 전문의에게서 뇌 영상 검사 등을 통한 철저한 감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초기 뇌졸중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먼저 뇌출혈로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뇌출혈의 양이 많을 때는 개두술로 뇌압을 낮추고 출혈을 제거해야 한다. 뇌동맥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파열된 뇌동맥류의 일종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재파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 뇌동맥류 파열은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양상의 두통에 구토 등이 동반되면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뇌경색은 발병 후 4시간30분 이내 혈전용해제를 전신에 투여해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약물치료로도 혈관이 뚫리지 않는다면 혈관 재개통률을 높이기 위해 혈관 내 수술인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거나 개두술을 통한 혈관 재개통술 또는 혈관 우회로술을 시행한다. 사타구니의 혈관을 2~3㎜ 정도 절개해 대퇴동맥에 도관을 넣어 치료하는 방법인 혈관 내 수술은 최근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핵심 치료법으로 주목받는다. 큰 뇌동맥이 막힌 급성 뇌경색의 치료에서 혈관 내 치료인 동맥 내 혈전제거술은 90% 이상의 혈관 재개통 성공률을 보인다. 뇌동맥류의 치료에서도 절반 이상의 수술을 혈관 내 수술로 시행한다.

뇌졸중은 수술 후 재발 방지도 중요하다. 고혈압·당뇨병 등 뇌졸중 위험요인을 조절한다. 금연·금주를 실천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희섭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치매
- 어지럼증
- 손발 저림
- 뇌졸중(중풍)
- 이명
- 감각이상
- 파킨슨병
- 불면증
- 보톡스
- 두통
- 수면질환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크리스퍼 혁신’, 유전자를 고쳐 질병을 치료한다

환자의 DNA를 고쳐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2023년 말, 영국과 미국 정부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최초의 세포치료제, ‘카스제비(Casgevy)’를 승인했다. 이 치료제는 제약회사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공동개발한 것으로, 흑인 500명 중 한 명 비율로 발생하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질환은 글로빈 유전자 변이에 의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인 C자 모양으로 변형되어 온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유전병이다. 그 결과 환자는 평생 심각한 빈혈 증상과 고통 속에 살다 대개 5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카스제비는 환자의 조혈모세포 DNA를 교정해 정상적인 글로빈 단백질을 발현시킴으로써 환자들에게 완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는 인류가 DNA를 직접 수정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그 원인 유전자가 밝혀진 최초의 유전 질환이다. 현재까지 혈우병, 듀센 근위축증, 낭포성 섬유증 등 6000개 이상의 유전 질환이 보고되었다. 대략 50명 중 한 명의 신생아가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유전 질환은 치료제가 없어서 환자는 평생 고통받다가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유전질환자는 부모로부터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기도 하지만, 부모의 체세포에는 없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후자는 부모의 정자 또는 난자세포에 돌연변이가 새롭게 발생하여 초래되거나 환자의 체세포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여 초래된다.

돌연변이는 모든 생명체의 숙명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는 왜 발생하고 이를 피할 수는 없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돌연변이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숙명으로, 이를 피할 수 없다. 방사능·자외선·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화합물들이 DNA에 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운 좋게 모두 피하더라도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 중 자연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세포 분열과 증식에 필요한 DNA 중합효소가 DNA를 복제할 때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실수하기 때문에 저절로 발생하기도 한다. 돌연변이는 유전 질환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돌연변이가 드물기는 하지만 유전자의 기능을 향상할 수도 있고, 특정 질병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연변이가 없다면 모든 자손이 부모와 100%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집단은 질병과 환경 변화에 취약해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는 조상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아 생존하게 된 것이고, 새로운 돌연변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유전자치료는 유전 질환자에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투여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혈우병을 비롯한 수십 개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 카스제비와 같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반 유전자 교정 치료는 이러한 일반적인 유전자치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전자치료는 결함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두고 정상 유전자를 추가로 환자 세포에 도입하는 방식인 반면, 유전자 교정은 손상된 유전자를 직접 고쳐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자동차 수리에 비유하면, 터진 바퀴를 교체하지 않고 다섯 번째 바퀴를 추가하는 것이 전통적 유전자치료라고 할 수 있고, 터진 바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유전자 교정이다. 카스제비는 후자의 접근법으로 높은 안전성과 치료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수십 건의 유전자 교정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은 없다.

인공지능(AI) 그림 생성기 ‘달리(DALL·E)’를 이용해 그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이미지.

영·미, 첫 크리스퍼 치료제 승인
DNA 수정 치료 시대 진입 의미
한국에선 관련 임상시험 없어
혁신엔 지속적 투자·지원 필요

질병에 강한 동·식물 만들 수 있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세균의 면역체계에서 유래했다. 세균은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크리스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퍼는 세균 DNA 내에 바이러스 DNA의 조각이 일정 간격으로 삽입된 구조를 말하며, 이 조각들은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했을 때 이를 기억해 공격하는 데 활용된다. 크리스퍼 시스템은 카스 단백질과 작은 가이드 RNA 분자들의 협력을 통해 바이러스 DNA를 절단하며, 세균을 보호한다. 2012년,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팀은 크리스퍼 시스템을 이용해 시험관에서 특정 DNA를 절단할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 기술이 인간 세포의 유전자 교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2013년 1월, 서울대 연구팀을 비롯해 미국 유수 대학의 연구진이 각각 독자적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인간 배양세포에 도입해 유전체 DNA를 자르고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을 발표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동식물의 유전자 교정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생쥐와 같은 실험동물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의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질병 내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동물이 만들어졌다. 또한, 벼·옥수수·감자 등 농작물의 유전자에 변이를 도입해 질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개발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다. 세균에서 유래한 단백질과 RNA 연구가 인간과 동·식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혁신적 도구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수 툴젠 창업자

◈**김진수**=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018년 ‘동아시아 스타 과학자 10인’중 한 명으로 꼽았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명공학기업 툴젠의 창업자이며, 서울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유전체교정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병원리포트 고려대안암병원·연세대 공동연구팀

언제 일어날지 모를 공황발작, AI 활용해 하루 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황발작 위험도를 하루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고려대·연세대 공동연구팀(조철현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장수영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 박사과정, 박유랑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 교수)이 기분장애·불안장애 환자 43명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최대 2년간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발한 등 신체 증상과 함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특징으로 한다.

고려대·연세대 공동연구팀 개발
데이터 통한 예측모델 정확도 90%

특히 발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예기불안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연구팀은 환자에게 특별 제작된 스마트폰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심박 수, 수면 패턴, 걸음 수와 같은 생체 정보는 물론 일일 기분 상태, 에너지 수준, 불안 정도, 커피 섭취량, 운동 여부 등 생활습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모델을 수립한 결과, 90.5%의 정확도로 다음 날 발생할 공황발작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박유랑 교수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언제 올지 모르는 공황발작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이러한 예기불안이 오히려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 예측 모델은 이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교수는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치료가 발작이 발생한 후 대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24시간 연속 모니터링한 양질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병원 방문 시 단편적으로만 이뤄지던 평가를 넘어 환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과제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에임메드,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표현형 AI 기반 공황장애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데이터(Scientific Data)’에 실렸다.

신영경 기자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건강 칼럼

팔다리의 이상감각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51세 여성 환자가 사지의 이상 감각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가만히 있거나 누워있을 때 두다리 끝에서부터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 느낌이 생기며 동시에 저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언제부턴가는 저림과 동시에 시린 느낌이 팔다리 전체에 발생하였다.

환자의 증상은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이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기가 곤란하였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니 낮에 매우 졸리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낮 동안에 졸리는 것 외에도 직장 업무 중에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거나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할 때에도 가만히 앉아 있기가 매우 괴롭다고 하였다.

밤에는 수면 부족, 낮에는 일상활동의 심각한 지장으로, 환자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동시에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밤마다 다리나 손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만히 있으면 다리가 자꾸 시리고 저리다.' 등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와 같은 증상은 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겐 약간은 이상하게 들릴 수 도 있으나, 단지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10%에서 하지불안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편두통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의학적 설명으로는 전체적인 신경계가 민감화되어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철분 결핍이 있는 환자에게 하지불안증후군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철분 부족을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으로 생각하였으나, 연구결과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기능 저하가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 발생 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 통계에 의하면 환자는 보통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생긴지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환자의 20 또는 30대에 증상이 발생하여, 50대 이후에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셈이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받기 이전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짐작할 만 하다. 또한 중요한 사실로는 환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져 병자체가 진행된다고 하니,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시니어

탈출 제대로 하려면 '튼튼한 가방' 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탈출을 위해서 탈출 가방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탈출 가방에 들어가야 할 물품을 정리해 봤다. 각종 이머전시키트(disastersupplycenter.com)와 핸드크랭크 휴대용 라디오(amazon.com).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중국은 30년마다 난리가 났다고 한다. 너도 나도 황제하겠다는 영웅호걸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도 중국은 30년마다 난리다. 문화혁명도 있었고 천안문사태도 그런 것중 하나다. 최근의 팬데믹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미국도 땅이 넓다보니 난리가 많다. 피난 갈 일이 의외로 많다. 언제나 선정되는 유력 은퇴 후보지인 캘리포니아는 우선 지진을 시작으로 때마다 산불까지 탈출해야 할 일이 많다. 다른 곳은 지진대신 토네이도가 있다. 세계 최강의 선진국임에도 이렇게 피난 갈 일이 있을지 미국 이민 올 때는 몰랐다.

전국은퇴협회에서 내놓은 탈출 키트를 소개한다. 휴가나 친지 방문 같은 여행 가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자.

미국이 넓다는 것은 날씨 뉴스를 보면서,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뉴스를 보면서 실감할 때가 많다. 연말에 미 동부에 눈사태로 며칠째 출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 북가주 산속 집에 은둔해 있던 시니어들이 갑자기 번진 산불때문에 미처 피난을 못해서 타계했다는 뉴스도 있다.

이제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산사태, 홍수가 흔해짐에 따라 미국 시민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집을 나서 피난을 해야 할 때 필요한 물건을 가방 하나 또는 여러 개에 챙겨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조앤 김씨는 지진으로 인해 급히 대피해야 했을 때 처음으로 비상용 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재난 대비 키트에 대한 권장 사항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그는 주머니가 많은 대형 백팩을 찾아서 손전등과 배터리부터 생수까지 필수품을 가득 채웠다.

지난해 1000개가 넘는 토네이도, 하와이 마우이에서 10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산불, 대서양 연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7개 등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플로리다에 상륙하여 남동부 전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70대의 강두원씨는 비상 사태 대책의 하나로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발전기를 두고 있다. 그는 또한 예상하지 못하게 떠나야 할 경우 가방을 챙기고 한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다. 은퇴한 저널리스트인 그는 30만 장이 넘는 사진과 중요한 정보를 책 한 권 크기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 몇 개에 백업했다. 이 저장장치와 컴퓨터, 약 , 옷, 기타 몇 가지 품목만 챙기면 출발할 준비가 된다. 그는 책 세 권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제 자연 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보다 현명한 재난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시간을 투자해두는 것이 좋다. 재난 대비를 위해 비상 가방을 챙기는 것은 필수다.

1.가방

당연히 튼튼한 가방이 필요하다. 필수품을 담을 만큼 크고 튼튼해야 하며 , 이동 중에 들고 다닐 만큼 작아야 한다. 백팩이 그래서 안성맞춤이다. 가방이 무거워진다면 바퀴 달린 더플백이 좋다.

2.중요 서류

여권, 출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소셜 카드, 의료 보험 카드, 결혼, 입양, 귀화 증명서, 소유권 문서, 임대 문서, 보험 서류, 크레딧 카드 정보를 포함한 필수 중요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방수 지퍼백에 보관해서 가방에 미리 넣어두도록 한다.

3.음식과 음료수

다급한 경우 흔히 언급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 바, 인스턴트 오트밀, 견과류와 씨앗과 같이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또한 한명당 하루에 최소 1갤런의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수동 캔 오프너와 다용도 칼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휴대용 가방에는 최소 3일 분의 음식과 물이 들어 있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있다면 따로 준비해야 한다.

4.상비약 및 처방약

대피 경고가 있을 경우 약국에 전화해 추가 약물 리필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처방약 목록과 약국 및 의사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주사기, CPAP 기계, 산소 탱크와 같은 휴대용 특수 의료 장비도 필요하다. 사전 통보 없이 대피해야 하는 경우라도, 재난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약국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5.RSV, 독감 및 코로나19 대비

고령 시니어에게 독감, RSV, 코로나를 겪은 우리 인류에게 마스크는 이제 필수적인 아이템이 됐다. 마스크는 또한 화재로 인한 재를 걸러내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N95 마스크만이 천식이나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화재 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 최소 60%의 알코올이 포함된 손 세정제 , 비누, 항균 물티슈 및 온도계도 중요하다.

6.개인 생활용품

여행용 세면도구와 구급상자를 구입해야 한다. 따뜻한 방수층을 포함한 갈아입을 옷과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및 용액)를 챙기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동 가방에 넣어야 할 다른 품목으로 비상 담요, 가위, 덕트 테이프, 작업용 장갑, 수건, 성냥 등을 꼽는다.

7.전자제품

평소에는 밖에서 절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전화충전기, 손전등, 스마트폰 충전용 배터리 등이다. 미리 가방에 넣어놔야 한다. 또한 아마존에서 20달러면 구입할 수 있는 핸드 크랭크 휴대용 라디오를 구비하면 좋다. 재난으로 인해 모든 통신 회선이 끊어졌을 때 AM/FM 라디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다. 배터리가 없어도 크랭크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기에 더욱 신뢰가 간다.

8.현금

자연 재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면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살 수 없을 수 있으므로, 가방에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둔다. 시니어 부부 2명의 경우, 개솔린, 음식, 기타 마지막 순간 필수품을 충당하기 위해 수백 달러가 있어야 한다. 자판기에서 음식이나 물을 사야 할 경우를 대비해 소액 지폐와 25센트 쿼터 동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탈출 가방은 어디에 둬야 하나. 탈출 동선상에 있는 현관 옷장이나 차고와 같이 접근이 쉬운 곳에 두어 문을 나설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면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탈출 가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장병희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어머, 저기 인사동 아니야? 넷플릭스 미드 보다 '깜짝'

글로벌 OTT 'K로케이션' 열풍
'엑스오, 키티' 서울 명소서 촬영
CIA 활약 '리크루트'도 강남 배경
영진위, 국내 촬영 땐 비용 환급
광장시장·감천문화마을 등 인기

1 '더 리크루트 2'의 주인공 오언 헨드릭스는 서울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 2 '엑스오, 키티 2'의 주인공 키티(맨 왼쪽)와 친구들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3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촬영한 키티와 민호(왼쪽)의 대화 장면. 4 '엑스오, 키티 2'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

"오늘 저녁에 모이자고 한 이유는, 너희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짠~!"

지난달 16일 공개 직후 '오징어 게임 2'를 제치고 넷플릭스 TV 시리즈 글로벌 시청률 1위에 오른 미국 드라마 '엑스오, 키티(XO, Kitty) 2'의 한 장면, 주인공인 '한국계 미국인' 고등학생인 키티 송 코비(안나 캐스카트)의 친구 한유리(지아 킴)는 식당에 모인 친구들과 물컵으로 건배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식당 창문엔 창호지가 붙어 있고, 식탁엔 한국식 불판이 놓였다.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한 고깃집이다.

'엑스오, 키티'는 2018년 공개돼 미국 젠지(Gen-Z·1995~2010년생) 세대에게 큰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내가 사랑한 모든 남자들'의 스핀오프 작품이다. 시즌 2는 키티가 어머니의 모교인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키티가 다니는 학교 장면은 충남 천안시 상명대 캠퍼스에서 찍었고, 서울 '핫플레이스'인 성수동 연무장길, 종로구 젊음의 거리, 한강공원 등 눈에 익은 장소들이 대거 등장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리크루트 2'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장면을 촬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신입 변호사인 오언 헨드릭스(노아 센티네오)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위협 받는 상황에 휘말린다. 서울 잠실 롯데타워와 강남대로가 자주 등장하고, 오토바이로 재래시장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액션씬이 펼쳐진다.

한국을 주요 로케이션(촬영지)으로 한 글로벌 OTT 작품이 늘고 있다. 이전엔 애플TV+의 '파친코' 시즌1, 2처럼 원작부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주로 촬영됐지만, 최근엔 일부러 한국 배경의 스토리 라인을 넣은 액션물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방영 예정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시리즈 '버터플라이'도 지난해 6월 말 서울에서 촬영을 마쳤다. 동명의 그래픽 노블이 원작으로, 드라마화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각색했다. 한국계 미국인 제작자 겸 배우 대니얼 대 킴, 국내 배우 김태희와 박해수가 출연한다.

'엑스오, 키티' 제작진에 한국 촬영지를 소개하고 섭외 등을 지원한 나인테일드폭스의 황선권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2013년엔 1개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해 3개 작품을 찍었고 6개 작품의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4

한국 로케 작품 증가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인기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OTT가 특정 지역 촬영을 콘텐트 차별화 장치로 활용하는 추세도 맞물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의 술 게임을 등장시켜 화제를 모은 로제의 '아파트'(APT.)처럼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의 관심을 받는 추세"라며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이미지나 궁금해 하는 문화를 드라마에 담아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외 제작진이 선호하는 촬영지는 한국의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랜드마크'다. 서울 강남의 빌딩숲은 물론이고 종로구 인사동과 광장시장, 부산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 등이 인기다. 인터넷무비데이타베이스(IMdb)에서 '엑스오, 키티 2'에 7점을 준 한 시청자는 "서울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멋지게 보여줬다. 한국 문화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지역영상위원회의 지원 제도도 한 몫 하고 있다. 영진위는 한국에서 5일 이상 촬영하고, 한국 내 집행 비용이 최소 4억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 국내 영상인력 및 업체에 지출한 비용의 25%까지 환급해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엑스오, 키티 2'와 '더 리크루트 2'도 이 지원을 받았다. 지역영상위원회도 일정 기간 이상 지역 내에서 촬영한 작품에 대해 지역 내 지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영진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기존 '외국 영상물'에서 '국제 공동제작영화'로 확대하면서 올해 들어 이 사업에 접수된 작품 건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다"며 "글로벌 콘텐트의 꾸준한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리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메달 3개 따고도 웃지 못한 김준호

1

2

3

4

1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뒤 아쉬운 눈물을 삼키는 김준호. 2 그는 500m 금메달을 목표로 역주했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해 3위로 밀렸다. 3 차민규·조상혁과 함께 출전한 팀 스프린트에서도 은메달을 따내 금빛 꿈은 이루지 못했다. 4 카자흐스탄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이 경기에서 1-2로 아쉽게 패해 연승 행진을 마감하고 A조 2위로 예선을 마쳤다.

[로이터·신화·AP=연합뉴스, 뉴스1]

바랐던 메달 3개는 따냈다. 그래도 김준호(30·강원도청)는 웃지 못했다. 동계올림픽 네 번째 출전은 무산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김준호는 10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결선에서 35초03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땄다. 이어 차민규(32·동두천시청), 조상혁(24·스포츠토토)과 함께 출전한 팀 스프린트 결선에선 1분20초48에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김준호는 전날 남자 100m 동메달까지 합쳐 이번 대회에서 메달 3개(은 1, 동 2)를 수확했다. 생애 첫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일군 값진 성과다.

경기 후 만난 김준호 얼굴에서 미소를 찾기 어려웠다. 1995년생인 김준호는 아직 병역 미필이다. 공백기 없이 남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면 이번 대회 금메달이 필요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메달리스트에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김준호의 경우 동계올림픽은 세 차례(2014 소치, 2018 평창, 2022 베이징) 출전했지만, 동계아시안게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 삿포로 대회 당시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고, 그 이후에는 대회 유치에 나선 국가가 없어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500m 금메달 후보로 꼽혔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500m 경기 직후 눈물을 보인 김준호는 "그간 고생했던 기억이 스치면서 울컥했다. 다음 경기가 있어 많이 울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났다"며 "후련함과 아쉬움을 함께 느낀다. 병역과 관련해선 말하기 조심스럽다.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일단 기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11일 마지막 레이스를 펼친다. 남·여 1000m와 팀 추월이 열린다. 메달 기대를 모으는 경기는 남자 팀 추월이다. 동계아시안게임 통산 8개의 메달을 딴 '빙속 맏형' 이승훈(37·알펜시아)이 입상할 경우 쇼트트랙 김동성(45·은퇴)을 넘어 한국 선수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다. 4년 뒤인 2029 네옴시티(사우디아라비아) 대회에는 출전이 쉽지 않아 이번이 역사를 쓸 마지막 기회다.

지난 주말 금메달 11개를 모았던 한국은 이날 금메달 추가에 실패했다. 그래도 설상에서 금메달 못지않은 메달을 수확했다. 강동훈(19·고림고)이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결선에서 158.75점을 받아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8일 슬로프스타일에서도 동메달을 따낸 강동훈은 큰 점프대에서 도약해 현란한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빅에어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 한국 남자 컬링은 쾌조의 3연승을 달렸다. 예선 2차전에서 대만을 10-1로 크게 물리쳤다. 1엔드에만 5점을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고, 2엔드 1실점 이후 계속 득점을 추가해 대만의 백기를 받아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는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강호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예선전을 치른 한국은 3피리어드 막판까지 1-1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실점해 1-2로 졌다. 승리한 카자흐스탄은 A조 1위(승점 15)를 유지했고, 한국은 2위(승점 11)로 예선을 마쳤다. 8강전 등 토너먼트는 11일 시작한다.

하얼빈=고봉준 기자

재미교포 노예림, LPGA 투어 6년만에 첫 우승

파운더스컵 최종합계 21언더파
"브룸 퍼터 사용한 뒤 안정 찾아"
고진영 2위, 두 대회 연속 톱5

노예림이 10일(한국시간)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뒤 기쁨의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재미교포 노예림(23·미국 이름 옐리미노)이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의 브래든턴 골프장(파71)에서 끝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파운더스컵(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노예림은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추가해 최종합계 21언더파를 기록해, 최종합계 17언더파의 2위 고진영(30)을 4타 차로 제쳤다.

초반에는 고진영이 기세를 올렸다. 최종 라운드를 노예림에 1타 뒤진 2위로 출발한 고진영은 8번 홀까지 3타를 줄이면서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13번 홀에서 공이 그린 사이드 벙커에 박혀 보기를 하면서 흐름이 깨졌다.

특히 힐튼 그랜트 배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 3라운드 7번 홀 이후 이어온 96홀 노보기(no bogey) 행진을 마감했다. 고진영이 주춤한 사이, 노예림이 13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다시 1위로 나섰다. 노예림은 이어진 14번 홀에서도 4m 버디 퍼트를 넣었다. 반면 고진영은 14번 홀에서 2m 파 퍼트를 놓쳤고, 3타 차로 간격이 벌어졌다. 고진영의 16번 홀 보기로 승부는 사실상 갈렸다.

노예림은 18살이던 2019년 7월 월요예선을 통해 LPGA 투어 손베리 클래식에 출전했다. 당시 첫날 9언더파로 선두에 나서면서 화제가 됐다. 우승은 무산됐지만,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박성현(32)과 나란히 공동 6위에 올랐다. 박성현(1m71㎝)보다 큰 1m75㎝ 키와 270야드가 넘는 장타로도 주목을 받았다. 사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경기에서 시구하는 등 주목받던 유망주였다. US여자 주니어 챔피언십, 캐나다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 등에서 우승했고, 대학 진학 대신 2020년 곧장 LPGA 투어에 뛰어들었다.

공교롭게도 데뷔 직후 코로나19로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노예림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2020년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2위), 2021년 에비앙 챔피언십(3위) 등에서 우승 경쟁한 게 거의 전부다. 성적이 나빠 2023년에는 Q시리즈도 다시 치렀다. 그랬던 노예림은 6번째 시즌을 맞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그는 "브룸(빗자루) 퍼터를 사용한 후 그린에서 안정을 찾았고 체력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노예림은 프로 데뷔 후 최종라운드에선 늘 검정 옷을 입었다. "잘 어울린다"는 어머니의 추천 때문이었다. 정작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랑이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검정 옷을 입지 않았다. 이날도 하늘색 옷을 입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고진영은 부상 전의 기량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다. 재활운동을 많이 한 듯 몸도 탄탄해 보였고, 샷 거리도 부쩍 늘었다. 장타자 노예림과도 티샷 거리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고진영은 개막전 공동 4위에 이어 2주 연속 톱5에 들었다.

성호준 골프전문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서울 이구 한방병원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New Hampshire Ave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sor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HOT DEAL SUPER SALE

2월의 세일

요리에 편리함을 더한 특허받은 기울기 41.5도 자동회전냄비

열가두는 자동회전냄비 인스타그램 유투브 화제의 리뷰템!

바이탈 롤팬원통자동회전냄비

통가열 입체구조: 그레이, 머스터드, 민트 ~~$290~~ $199

당 함량율을 49% 줄인 날씬한 저당밥으로 건강하게!

찜트레이, 8가지 취사모드 / 혈당관리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BANU 바누저당 밥솥 (흰색,검정)

24분 쾌속백미, 이지터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149~~ $79

재활전문의가 직접 제조/ 근육통, 관절염 등 즉각적인 효과

전세계 8개국 인증 제조 특허/ 시원하고 화끈한 핫&쿨 제형

메디슨벨 알약 패치(48매 Pill Patch)

숨쉬는 통기성 탄력원단 굴곡 밀착, 2가지 사이즈 $29

가래,기침,천식 증상완화에 효과적인 생약성분 한방감기약

감기증상, 목통증과 두통개선/ 가래, 기침, 천식 증상 완화

자모 연조엑스+안티캄 캡슐 번들

자모3+안티캄2 $37.40 자모6+안티캄4 $72.99

100% 순수발효효소 더부룩한 일상 트렌디한 관리 2주 감량

발효콤부과채효소 22%함유 섭취하기 용이한 스틱형 제품

김소형원방 발효 콤부 과채효소 90g

1BOX (30포) $39.99 2BOX (60포) $69.99 4BOX (120포) $119.97

단델리온 깊은 잔향과 부드러움, 은은한 향취가 촉촉하게!

댕기머리가 제안하는 풍부한 향으로 더욱 향기롭게 관리

댕기머리 수페온 데일리 무드 바디로션

플로럴계열의 따뜻한 봄날의 향기 $15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교통 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Super Lawyers — Peter K. Hwang — SELECTED IN 2017

RATED BY Super Lawyers — RISING STARS — Peter K. Hwang — SuperLawyers.com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QS.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T. 410.772.232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2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 화
240-316-1823

LAmart
구 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 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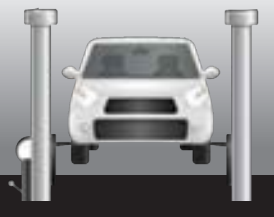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급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급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챈틀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셔니스트, 엑티비티 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매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 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 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륜델밀 샤핑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컷시티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 방2개, 큰부엌, 화장실, 세탁기, 인터넷완비
443-355-6767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버튼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덱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443-983-8100

메릴랜드 저먼터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이층 욕실딸린 큰방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하나
주방,욕실,인터넷,가구완비
301-538-143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 드스 탁 반 지하 단독.화 장실.침대 .출입문 별도.금연.MD
443-983-1880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끗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인터넷완비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 ,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체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Tutor (College-Prep): Collaborate with students, parents, or counselors to assist student's progress.
Assist students in solving quizzes in high school level science and math.
Advise students about college skills of study, note-taking, test-taking, and writings with purpose to use through college classes.
Position reports to the employer but may telecommute from anywhere in the U.S. 40 hours/week. Associate degree in a science or mathematics engineering field or equivalent require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Holistic College Consulting, LLC at 14057 Sunrise Valley Dr., Herndon, VA 20171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쉐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 - F (9-5pm)
856-304-1907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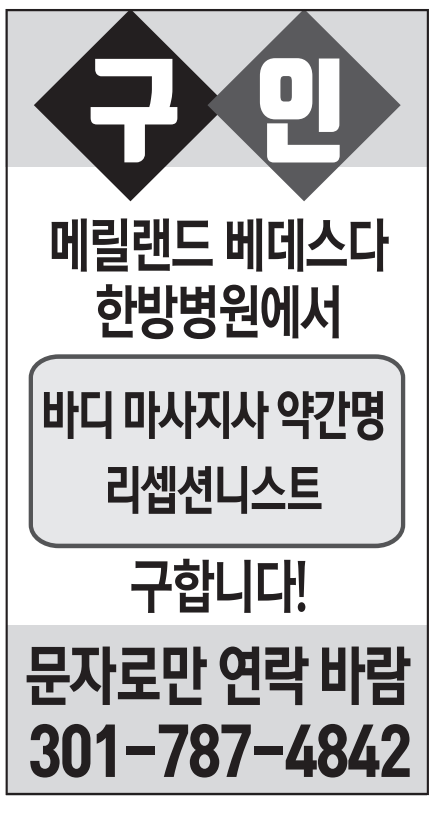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험자 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파타임, 케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케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로톤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깡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 (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 12시~19:30분
240-994-8456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980-191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 •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 크레딛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웍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애난데일 콘도 렌트$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있슴). H-Mart 가까움.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렌트 방2화1
부엌화장실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생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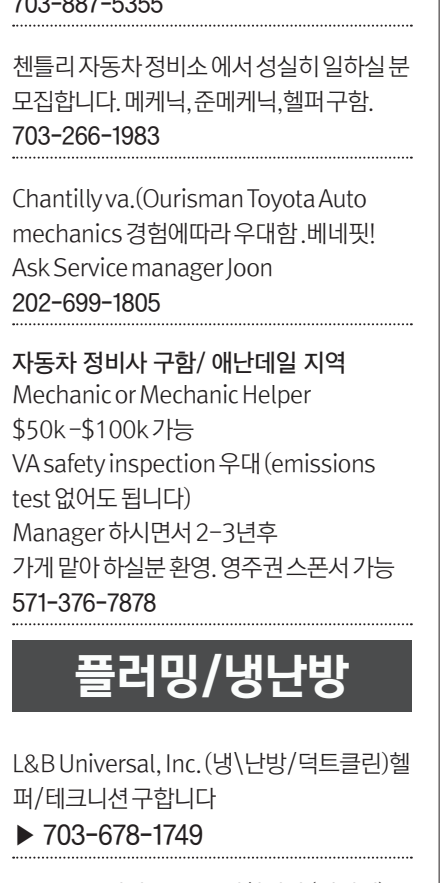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에난데일 H마트옆 방하나 화장실하나, 직장인환영, 남녀 불문, 즉시 입주 가능 $800
703-350-1986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조지메이슨근처 안전하고 조용한 싱글홈 반지하방/부엌/세탁기/냉장고/가구완비/인터넷/출입문별도
703-350-2278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애난데일 K마트뒤 싱글하우스 방하나렌트 주차넉넉
703-965-234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챈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테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 앞에 버스 스탑 있슴
703-244-345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 / 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 / 웍아웃/샤워/ 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 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 /여자분 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함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콘도 -렌트 2층 1200sqft $2,100 , 방 1 /화1/ 큰 오픈사무공간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사업체 매매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앤지 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샬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부동산 전문가가 되세요. 뉴스타 부동산 학교 개강
2월11일(화) 저녁 6시, 기간 : 6주
비용 : $295 + $100 (교재)
문의 : 703-496-4989

귀국으로 가구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팝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전등 고미술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799-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inyeolchoi@hotmail.com
703-946-4969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도와드립니다. 관공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MD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쎈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씽크/디스포져
◆워러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썸펌프 교체
핸디맨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딩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월/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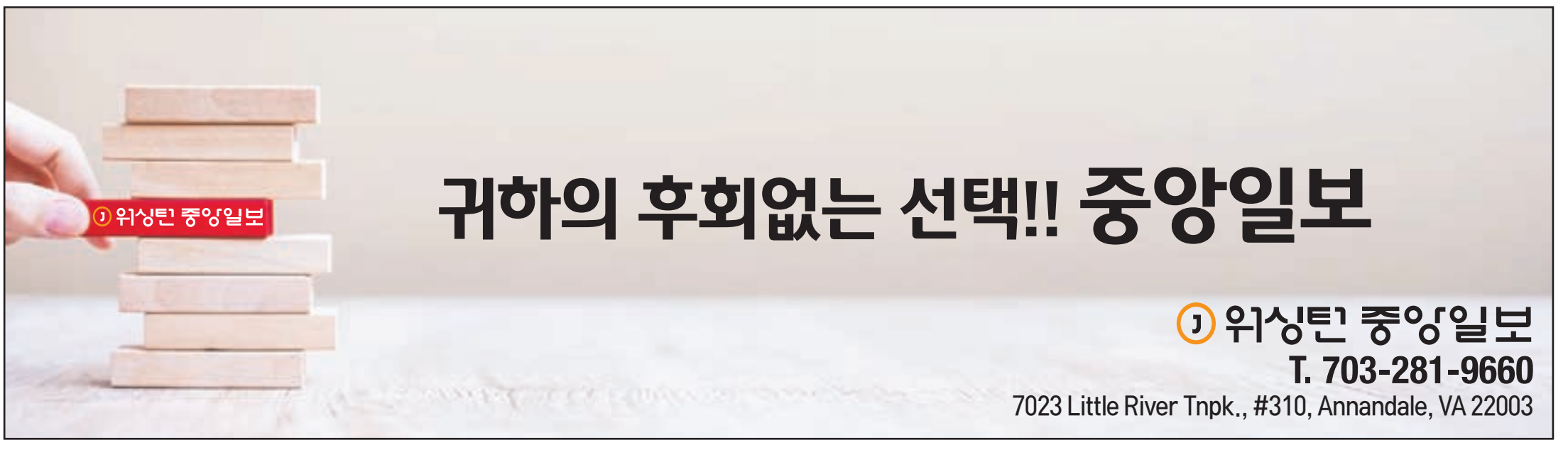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full; 배 부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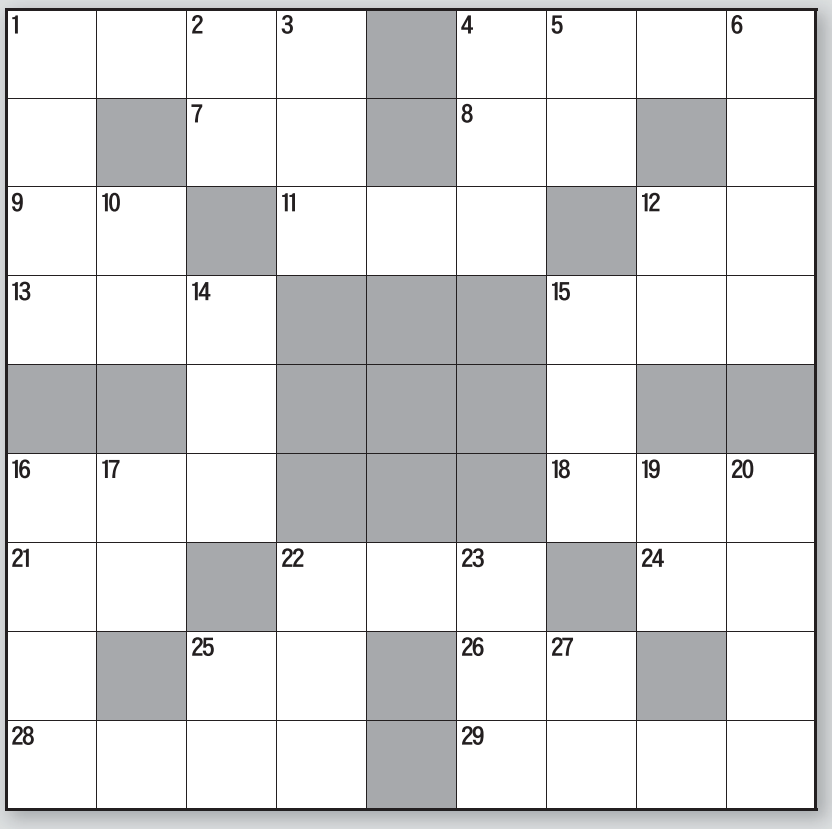
Jean is having dinner with her brother Ray.
(진이 남동생 레이와 저녁을 먹고 있다.)

Jean: Would you like a second helping of chicken?
진: 닭요리 한 접시 더 먹을래?
Ray: Oh no. Thank you.
레이: 아니. 고맙지만 사양할게.
Jean: Have you had enough?
진: 많이 먹었어?
Ray: Yes, thank you. I'm full.
레이: 응. 고마워. 배 부르게 먹었어.
Jean: I hope you have room for dessert.
진: 후식 먹을 배는 따로 있겠지.
Ray: I do. What's for dessert?
레이: 그럼. 후식이 뭔데?
Jean: Apple pie and ice cream.
진: 사과 파이하고 아이스크림.
Ray: That's my favorite.
레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Jean: And I've got coffee going.
진: 커피도 내려 놨어.
Ray: Great. I'd love a cup.
레이: 잘됐다. 커피 한 잔 마실래.

기억할만한 표현

▶ a second helping: 두 그릇 째
"That salmon is great. I'm going to have a second helping."
(연어가 아주 맛있네요. 한 접시 더 먹어야 겠어요.)
▶ have room for dessert: 후식을 먹을 수 있다.
"Don't eat too much dinner. I want you to have room for dessert."
(저녁 식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후식 드셔야죠.)
▶ to have coffee going: 커피 내리고 있어요.
"I have coffee going. It'll be ready in a couple of minutes." (커피 내리고 있어요. 몇 분만 있으면 되요.)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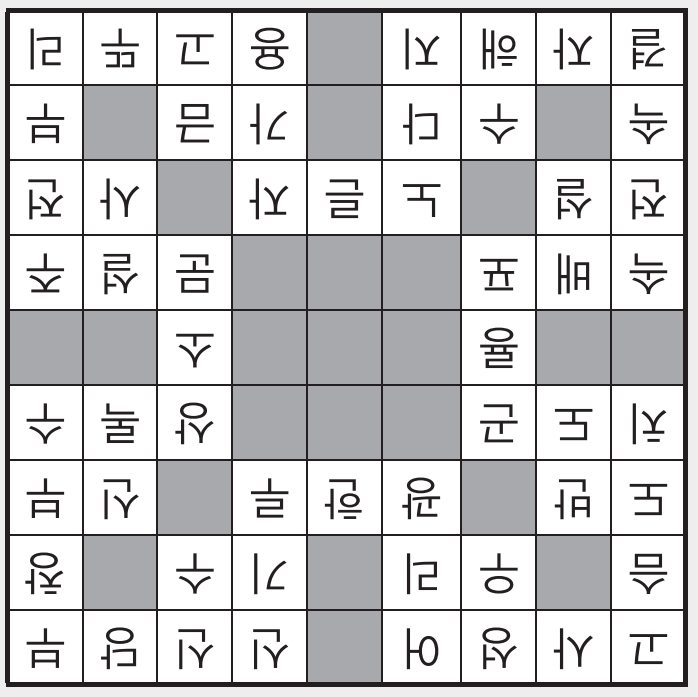


가로열쇠

(1)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 ~는 인간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짤막한 이야기이다. ㅁ사ㅁㅁ (4)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하게 하는 부탁 (7)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돼지~ (8)대열의 앞에서 기를 들고 가는 사람 (9)함께 불도를 닦는 벗. 아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며, 내 버팀목이고 견인자다 (11)이몽룡과 성춘향이 인연을 맺은 곳. 경내에 춘향의 사당이 있다 (12)갓 결혼한 여자 (13)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 주로 절도범 등에게 쓰였다 (15)소나무, 대나무와 같이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 (16)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 복안 (18)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21)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낙화암에는 삼천 궁녀에 얽힌 ~이 있다 (22)알의 노란 부분 (24)일이 일어나기 전 (25)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26)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닭, 오리, 거위 (28)맺은 사람이 풀어야 함.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함 (29)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우는 사람. 골초. ㅁㅁ뚜ㅁ

세로열쇠

(1)몸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적이 가까이 오면 밤송이같이 만들죠 (2)목소리만으로 연기하는 배우 (3)어른에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어리고 예쁜 태도를 보이는 일 (4)대기에서 일어나는 빛의 이상 굴절 현상 (5)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가 훤하다 (6)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함.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면 아내는 그 일을 도와가며 서로 협동하고 화합함 (10)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연결된 땅 (12)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연한 초록빛.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활홀한 ~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은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이양하) (14)용이 수놓아져 있는 임금의 정복 (15)임금에게 올리는 글 (16)싸움을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끝장을 냄 (17)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 (19)묽은 변을 누는 일 (20)끼니 외에 군음식을 먹음 (22)필요한 물건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 (23)자기 소유의 자동차 (25)홍수로 인한 재해 (27)돈, 귀중품, 중요 서류 따위를 보관하죠



스도쿠

3		8	6	7	9			4
	2	4		1	3			
7						8		1
1	8		4					
9	4	5	7			2		8
	7	6		9	8			
4			1	6		7		9
			9		2	3	1	
				8	7	4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	1	8	6	7	9	2	5	4
8	5	7	9	4	2	3	1	6
4	3	2	1	6	5	7	8	9
2	7	6	5	9	8	1	4	3
9	4	5	7	3	1	2	6	8
1	8	3	4	2	6	9	7	5
7	6	9	2	5	4	8	3	1
5	2	4	8	1	3	6	9	7
6	9	1	3	8	7	5	2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구인

아침쿡&양식쿡

딜리버리겸 주방헬퍼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라스카 식당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창간 50

www.koreadaily.com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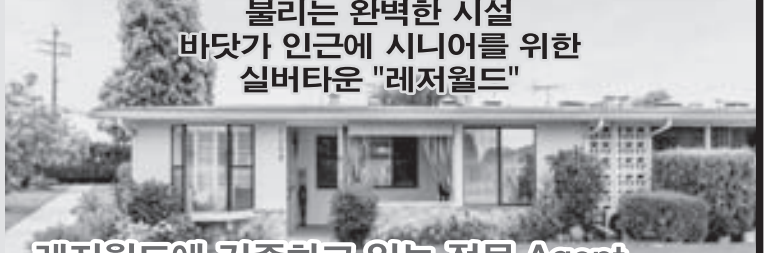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3차신경통과 중풍치료로 기적을 경험하다!

"중풍과 3차 신경통,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그는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했던 그는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을 찾았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침, 뜸, 약물 치료 등 6단계 치료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델휘노 씨는 치료 후 틀어진 몸이 반듯해지고, 통증과 언어 장애가 개선되었으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3차 신경통 치료도 전문으로 한다. 3차 신경통은 얼굴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 질환으로, 말하거나 씹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서 박사는 "한방 치료를 통해 신경 압박을 해소하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풍과 3차 신경통 치료의 핵심은 기혈 순환을 돕고 혈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심혈관 치료를 위한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함께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풍 예방을 위해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 문의: (213) 385-3304
▶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매·도매 민물장어 판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당신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EB-3 비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닭공장, 생선공장 등]

자격 조건 유학생 포함 합법 신분 소지자, 학력, 경력 및 영어 성적 무관, 건강하며 범죄 기록 없는 자. 누구나 지원 가능.

웹사이트 : www.worldwidecompass.com
전화문의 : 213-788-8376 (엘에이), 470-223-3979 (아틀란타)
이메일 문의: kseri@worldwidecompass.com

교통사고 치료 전문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